

Sulwhasoo

VOL.69 SEPTEMBER/OCTOBER 2015

Sulwhasoo

Sulwhasoo

SEPTEMBER/OCTOBER 2015





경북궁 향원정의 십장생 / 사석원, 194×518cm, Oil on Canvas, 2015

한 나라의 수도로서 600년을 살아온 서울이 품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 그중에서도 하늘 높이 치솟은 빌딩 숲 속에서 깊은 날숨을 쉬며 서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고궁. 그곳은 역사적 의미와 함께 사석원 작가의 어릴 적 추억이 담긴 보고이자 추구하는 작품 세계의 근원지로 떠오른다. 서울 토박이인 작가에게 여러 시공간이 교차하는 옛 궁궐은 분주한 일상을 벗어나 호젓함을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수백 년 전 이곳을 걸었을 왕들의 자취를 따라 밟으며 마음속에 담긴 고궁의 아취를 화폭에 그려낸다. 사석원만의 강렬한 원색과 힘 있는 붓놀림, 거친 마티에르는 캔버스 위에 600년 조선 왕조의 위엄과 번영 그리고 좌절과 슬픔이 섞인 옛이야기를 웅장하고 드라마틱하게 담아내고 있다. 특히 튜브의 물감을 미리 섞지 않고 직접 캔버스 위에서 혼합하기에 더욱 밝고 화려한 색채로 펼쳐진다. 한국적 미의 원형이나 전형을 떠올리게 하고 나아가 당대의 미학을 끌어올리겠다는 고차원의 각성을 심어주는 매개체로서 궁은, 사석원 작가의 화폭 위에서 숫자화할 수 없는 크기의 파워풀한 울림을 전한다. 에디터 권지애

Seoul has various faces as the capital of the country for 600 years, and at its heart is an old palace, sighing amidst the skyscrapers rising high up in the sky. This place has historical value; it is where the artist Suk Won Sa spent his happy childhood, where the world of art that he's currently pursuing first saw the light of day. Born in Seoul, the artist, to this day, is still drawn towards the old palace, where various times and spaces come together. He often takes time away from his busy life and follows the footsteps of the kings who graced the grounds of the palace hundreds of years ago. Then he transfers the mood of the old palace to canvas. The intense primary colors, the powerful strokes, and the rough materials of Suk Won Sa capture on canvas the dignity and prosperity of the 600 years of the Joseon Dynasty as well as the old stories of despair and sadness in magnificent and dramatic moods. The watercolor paints in the tubes are not mixed on a pallet but on the canvas to make the colors even brighter and more glamorous. As a medium that reminds us of the original or traditional beauty of Korea and inspires us to take the country's contemporary aesthetics to a higher level, the palace lets out a powerful echo that resounds on the canvas of Suk Won Sa.

Sulwhasoo

SEPTEMBER/OCTOBER 2015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홀리스틱 뷰티의 정수, 설화수

설화수는 순행하는 자연의 이치로부터 지혜를 얻고, 자연에서 나고 자란 진귀한 원료로 참된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내·외면의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설화수. 수천 년 아시아의 지혜가 담긴 전설적인 한방 성분을 현대 피부과학으로 재창조하여 피부 안팎을 총체적으로 케어하는 궁극의 피부 솔루션을 제공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주는 홀리스틱 뷰티를 선사한다. 삼천가지 원료에서 찾아낸 설화수 고유의 원료인 '자음단'과 설화수만의 독보적인 효능을 가능케 한 한국의 우수 원료 고려인삼 그리고 첨단 피부과학을 통해, 설화수는 한국을 넘어 세계에 홀리스틱 뷰티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설화수는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미국까지 전 세계 10여 개국에 진출, 아시안 뷰티 크리에이터로 자리 잡고 있다.

Sulwhasoo gains wisdom from the laws of nature and creates true beauty with precious ingredients grown in nature. It presents the balanced beauty of inside and out. The legendary Asian medicinal herbs that distill thousands of years of Asian wisdom are recreated with modern skincare science to provide the ultimate skincare solution, and create holistic beauty of harmony and balance. Sulwhasoo's original 'JAUM Balancing Complex', found from about 3,000 ingredients, coupled with Korea's outstanding ginseng that enables Sulwhasoo's unmatched efficacies and advanced skin science, spreads the value of holistic beauty throughout the world. As of 2015, Sulwhasoo conducts business in 10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Singapore, Hong Kong, Thailand, Indonesia, Malaysia, Taiwan, Vietnam, and the U.S., as the Asian beauty creator.



Sulwhasoo

VOL.69 SEPTEMBER/OCTOBER 2015



펼 치 다

〈Sulwhasoo〉는 설화수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주)아모레퍼시픽에서 연 6회 발행하는
고품격 VIP 매거진입니다.

발행인·서경배 편집인·류재현
발행처 (주)아모레퍼시픽·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 시그니처 빌딩
기획 및 제작·설화수 MC 팀 문의·고객상담팀(080-023-5454, 수신자 요금 부담)
편집, 디자인·기아 미디어·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81길 6 기아빌딩 02)317-4921
편집·권지애, 윤연숙 디자인·조윤희
발행일·2015년 9월 1일(통권 제69호)
사진·GURU visual 02)747-6118
시스템 출력·사빛그래픽
인쇄·(주)태산인텍 02)853-6574 www.inpack.co.kr 인쇄인·서명현

〈Sulwhasoo〉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08
품격 있는 삶
결실의 기쁨을 만끽하는 명절 풍경

12
피부 섬기기
인삼의 힘으로 범접할 수 없는 기운과 탄력을 얻다

16
동서고금이 만나다
모든 걸 답을 '그릇'을 가진 작가

22
新 공간을 보다
옛 서울역에서 만난 문화예술의 여정

28
건너다
자연과의 동행으로 365일 청명한 숨을 쉬다



누 리 다

36
설화인
그녀가 던지는 삶의 질문들, 손미나

42
어우러지다
여인의 정성, 手作의 절정

48
설화풍경
마음을 흔들며 붉게 떠오르는 丹楓의 노래

52
설화보감
배려와 베품의 美德, 한가위

58
설화수를 말하다
윤택함으로 삶의 아름다움까지
층만계 하니

64
디자인 기행
낯음에 열정의 색과 선을 덧대다



익 히 다

72
배움의 기쁨
붓질에 담긴 범고창신을 보다

78
한국의 멋
곱게 감싸는 마음이 깃들다

82
읽다
자유로운 선의 움직임이 공간에 스며들다

86
설화애장
질박한 맛이 배어든 문필가의 묵침

88
집 안 단장
문방사우의 志와 德이 쌓여가는 책상

90
몸 단장
가을의 향과 맛이 머무르는 어깨

92
마음 단장
뮤즈, 예술가들의 영감의 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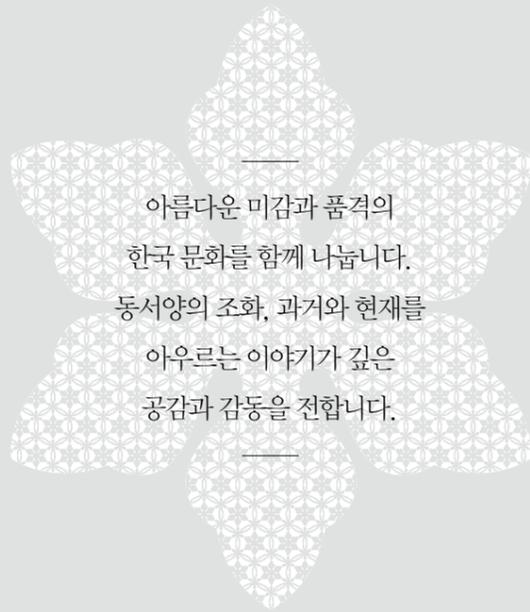
94
설화 헤리티지
뷰티 리추얼, 아름다움의 비밀



95
설화수 뉴스

96
문화 즐기기

98
독자 선물



아름다운 미감과 품격의
한국 문화를 함께 나눕니다.
동서양의 조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이야기가 깊은
공감과 감동을 전합니다.



펼
치
다

결실의 기쁨을 만끽하는 명절 풍경 *The Holiday Season with the Joy of Harvesting*

자연을 우러르고 조상과 이웃을 살피며 즐거움과 소망을 나누던 날! 옛사람들이 더도 덜도 말고 늘 한가위 같기만을 꿈꾸었던 건 '나가 아닌 '우리'가 우선되기 때문이었으리라.

글 박경수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류로 드 끌로디아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성대한 가을걷이 축제를 벌이는 건 인류의 오랜 전통이지만 그 시기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우리의 한가위와 중국의 중추절이 음력 8월 보름인 반면, 일본의 오봉절은 양력 8월 15일이다. 미국의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 프랑스의 '투생(Toussaint)'은 11월 1일, 러시아의 '성 드미트리 토요일'은 11월 8일 직전의 마지막 토요일이다. 하지만 결실의 기쁨을 만끽하고 자연에 감사하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축제라는 점만은 어디나 다를 게 없다.

어른들에게 문안을 다니고 고마운 분들을 찾아 덕담을 주고받으며 조상들에게 차례를 올리는 우리네 명절 예절은 늘 한결같지만, 햇곡과 햇과일로 풍성한 한가위의 차례상에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옛사람들은 햇벼를 찜어 만든 햅쌀로 신도주新稻酒와 송편을 빚어 조상께 올리고 지난 1년간의 은덕을 기렸다. 벌초와 성묘의 의미도 각별해서, 한가위 때 조상 묘를 찾지 않거나 봉분을 다듬지 않으면 '근본을 잊은 후손'이라는 세간의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었다.

It has long been a tradition to celebrate the harvest season each year, but the time of such celebration varies from region to region. Hangawi of Korea and Zhong Qiu Jie of China are celebrated on the 15th of August in the lunar calendar, and Obon of Japan, on the 15th of August in the solar calendar. Thanksgiving Day in the U.S. is on the fourth Thursday of November, and Toussaint of France, on November 1. Russia's St. Dimitri's Day is on the last Saturday before November 8. All these festivals gather people to celebrate the joy of harvesting, thank Mother Nature, and be with their loved ones.

In Korea, we visit our elders and the people for whom we are thankful, to share encouraging messages with them and to serve our ancestors each holiday season. Hangawi is more special, however, as it serves fresh grains and fruits. In the past, people would make Sindouju and Songpyeon with fresh rice to serve their ancestors and thank them for the past year. Grave rituals also had a special meaning. One could not avoid criticism if he or she did not visit or take care



담개 밥그릇은 이재준 작가 작품으로 LVS크래프트갤러리, 백자 찬합은 강설자 작가 작품으로 보고재, 우드 옷칠 트레이와 옷칠 미니 접시는 허명욱 작가 작품으로 조은숙 갤러리, 우드 티 테이블은 KIM ISO by 땅뜨디디자인, 한지로 제작된 유유자적悠悠自適 블라인드는 김혜신 작가 작품.

중국에서는 중추절 밤에 만월을 향해 제사를 지냈다. 제사상에 향초를 피우고 햇곡식을 비롯한 갖은 음식들을 늘어놓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보름달처럼 둥근 월병(月餅)이다. 달빛 비치는 곳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 다음, 화합을 상징하는 월병을 가족 인원수대로 잘라서 나눠 먹는 것이 중추의 달밤을 지새우는 대륙의 방식이었다. 월병 속에 서로의 행복을 기원하는 문구를 적은 쪽지를 넣어두는 살뜰한 풍습도 있었다.

일본의 오봉절은 조상의 영혼을 맞이하여 대접하고 공동체의 행복을 기원하는 날이다. 이날이 되면 조상들의 영혼을 맞이 위해 '무카에비(迎え火, 마중하는 불)'를 피우고, 영혼들이 돌아갈 때는 '오쿠리비(送り火, 배웅하는 불)'를 피운다. 지역 공동체가 함께 즐기는 대규모 축제도 곳곳에서 열리는데, 지옥에서 돌아온 망자들이 기뻐하며 춤을 췄다는 설화에서 기원한 '봉오도리'가 대표적이다. 보름달 아래서 축제를 즐겼다는 점에서 중추절과 닮았고 조상들에게 각별한 예의를 갖췄다는 점에서 오봉절과도 상통하는 우리의 한가위엔 또 하나의 중요한 전통이 있었다. '거북놀이'로 대표되는 부조 풍습이 바로 그것. 거북 등 모양으로 엮은 수수 잎을 등에 지고 마을을 돌며 햇곡식을 모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풍습이다. '공동체의 축제'라는 성격에 걸맞게,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돌보는 일 또한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이다. 5

of his or her ancestors' graves at Hangawi. In China, rituals used to be performed under the full moon on the night of Zhong Qiu Jie. Scented candles were lighted on tables, and various dishes, including fresh grains, were served. The signature dish were moon cakes, which were as round as the full moon. On the night of Zhong Qiu, people set the ritual table under the moonlight, served the ritual dishes, and cut the moon cake, which symbolizes unity, into pieces to share with their entire family. They also put messages of good luck in the moon cakes.

In Japan, Obon is the day when the spirits of ancestors are greeted and served to pray for the wellbeing of the community. On this day, the people set Mukaebi (fire of greeting) to welcome the spirits of ancestors, and Okuribi (fire of farewell) to send them off. There are many grand-scale festivals enjoyed by entire communities. Bongodori is a signature dance that originated from a tale in which the deceased, sent back from hell, danced with joy. Obon is similar to Zhong Qiu Jie in that they enjoy their festivals under a full moon, and Hangawi is similar to Obon in that we serve our ancestors with courtesy. However, Hangawi had a unique tradition: the custom of sharing, represented by the 'Turtle Game.' We carried on our backs sorghum leaves woven into the shape of a turtle shell, as we went around our village to gather fresh grains and share them with the poor. As it was a 'community feast,' we did not forget to take care of our neighbors.



내추럴 바스켓은 공정무역 울림.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듯한 한지 블라인드는 김혜신 작가 작품.

인삼의 힘으로 범접할 수 없는 기운과 탄력을 얻다

Ineffable energy and resilience with the power of ginseng

뜨거웠던 여름의 기운이 사라지고 반가운 금추金秋의 계절이 다가왔지만 주하朱夏의 열과 습에 지쳐 있던 피부는 기력과 탄력을 잃고 말았다. 이에 자음생크림과 자여진에센스는 인삼의 강인함으로 피부 건강을 가꾸어 피부 나이를 잊게 해주는 지혜로운 비책이다.

에디터 권자에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리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일러스트 임성구

몸이 약해지면 보약을 먹듯 피부 역시 기운을 살려 활력을 더할 보약이 필요할 때다. 여러 가지 노화 현상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피부 보약, 바로 자음생크림이다. 2000년에 처음 선보인 자음생크림은 오로지 인삼을 기본으로 탄생한, 인삼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인삼 결정체 크림'이다. 인삼 뿌리와 열매의 조합을 통해 인삼이 지닌 항산화 및 자생 효과를 더욱 업그레이드하며 피부 안팎을 탄탄하게 하고 피부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는 피부 자생력을 키워준다. 이는 효능과 품질로 세계적에서 인정받은 한국산 인삼에 대한 설화수만의 총체적 연구를 통해 인삼 사포닌을 피부 안티에이징 효능성분으로 변환시키는 설화수만의 바이오컨버전 기술을 개발하고 인삼의 생명력을 피부에 고스란히 전달하기에 가능한 것. 또한 바르는 순간 빠른 흡수를 도와주는 설화수만의 다중유화 기술로 피부 속은 영양 성분으로 채워주고 피부 겉은 끈적임 없이 매끄럽게 케어한다. 깊이 있는 인삼의 향취와 놀라운 흡수력, 풍부한 사용감 등은 기대 이상의 큰 만족감과 행복감을 선사할 것이다.

Just as you take Korean medicine when you feel weak, your skin needs a remedy to restore and revitalize its energy.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is the skin remedy that responds most actively to the various signs of aging. First released in 2000,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is an 'essence of ginseng' that has been created with nothing but ginseng. It is not an exaggeration that it is ginseng itself. It combines the popular root part with the ginseng berries to further strengthen the antioxidants and regenerators of ginseng so as to fortify the inside and outside of your skin and the natural regenerating capacity of your skin. Through Sulwhasoo's comprehensive study of Korean ginseng, which has been globally recognized for its miraculous efficacies and quality, Sulwhasoo has developed its original bio-conversion technology that converts ginseng saponin into active anti-aging substances and delivers the vitality of ginseng directly to the skin. Also, Sulwhasoo's multilateral emulsification technology that allows fast penetration upon application replenishes the inside with nutrition and leaves the outside smooth and silky, not sticky. The rich scent of ginseng, the amazing penetration, and the rich texture will deliver satisfaction and happiness beyond your expectations.

자음생크림

인삼 결정체가 피부 안팎에서 작용, 피부의 힘을 키워 피부를 개선하고 노화의 여러 현상들을 다스리는 안티에이징 크림. 60ml

도자로 촉각에 빛으로 시각에, 향으로 후각에 작용하는 캔들 시리즈 플레이트는 이지수 작가 작품으로 KCDF갤러리.



용수철을 모티브로 금속판을
 섬세하게 커팅하여 제작한
 브로치는 이수인 작가 작품으로
 KCDF갤러리.



자여진에센스

인삼 캡슐의 힘으로 깊어지는
 주름은 밀어내고 탄력은 끌어올려
 주는 에센스. 35ml/50ml

무수히 다양한 아름다운 피부의 조건 중에서 유독 탄력 있는 피부에 대한 열망이 절실한 것은 어쩌면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피부 안티에이징의 어려움 때문은 아닐까. 바로 이 시점에서 설화수가 놀라운 효과의 안티에이징 제품을 제안한다. 20대 중반부터 시작되는 피부 처짐은 탄력 저하로 꺼진 볼륨감, 그리고 잔주름과 깊은 주름으로까지 이어진다. 이는 겉 피부와 속 피부 사이에 존재하는 탄성막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주름 줄기 현상으로, 이것을 막지 못하면 주름 줄기가 얼굴 전체로 뻗치게 된다. 이렇듯 깊어지고 넓어지는 주름 줄기를 잡아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힘을 주며 인삼의 영양 성분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자여진에센스는 세월의 변화를 조율하는 탄력을 선사하고 있다. 인삼을 이용, 오랜 세월을 통해 입증된 한방 비법과 현대 과학, 그리고 무엇보다 강렬한 열망을 담아내며 기존의 잡힐 듯 말 듯 미미하던 안티에이징 효과를 보기 좋게 뛰어넘은 것이다. 탄성막의 네 가지 단백질을 강화하는 인삼 캡슐인 진세니스피어™는 피부에 탄성은 물론 촉촉한 영양까지 선사하기에, 손끝에 탱탱함이 그대로 느껴진다. 인삼의 은은한 허브 향을 지닌 자여진에센스는 모든 여인의 꿈을 실현시켜줄 한방 안티에이징으로 보배로운 제품이다. S

Many people long most for skin with resilience among the various conditions for beautiful skin, probably because aging is a problem that is very difficult to resolve. Sulwhasoo suggests an anti-aging product with astonishing effects. The sagging of skin that begins in the mid-20s leads to loss of volume, fine lines, and deep wrinkles due to loss of resilience. The deeply rooted wrinkles appear when the elastic barrier between the outer skin and the inner skin collapses. If you fail to stop them, they will spread to your entire face. Capsulized Ginseng Fortifying Serum stops these deepening and widening wrinkles and replenishes the energy of the skin from deep within the wrinkles with the nutrients of ginseng. By doing so, it delivers resilience that overrides the passing of time. The secrets of Korean medicinal herbs that have been proven over time, coupled with modern science and intense passion, have been applied to ginseng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other anti-aging formulas with significant results. Ginsenisphere™, the ginseng capsule that fortifies the four proteins of the elastic barrier, enhances the elasticity of your skin with hydration and nutrition, so your skin feels plumper instantly. With the subtle scent of ginseng, Capsulized Ginseng Fortifying Serum is an invaluable Korean herbal medicinal anti-aging product that will realize the dream of every woman for youthful skin.

**지두 마사지
 미용법**

지두 指肚 마사지란

양손의 3개 손가락 끝을 이용해 탄력저하와 주름이 집중된 부위를 지압해 주는 마사지다.
Jidu Massage: Jidu Massage uses the tips of three fingers on each hand to pressure and massage facial areas that have begun to lose resilience and to form wrinkles.

Step 1 눈가

3개 손가락의 지두 부분을 눈썹 위쪽에 밀착시켜 눈썹 앞머리 → 중앙 → 꼬리 부분을 5초간 가볍게 눌러준다.
Eye Area: Place the tips of three fingers on each hand above the eyebrows and gently press the top of the eyebrows, then the center, and finally, the tail for 5 seconds.

Step 2 볼 주변

광대 위쪽의 움푹 들어간 부위를 밀착시켜 5초간 가볍게 눌러준다.
Cheeks: Place the fingers on the depressed parts above the cheekbones and gently press them for 5 seconds.

Step 3 입 주변

광대 아래 부분의 움푹 들어간 부위를 밀착시켜 5초간 가볍게 눌러준다.
Lip Area: Place the fingers on the depressed parts below the cheekbones and gently press them for 5 seconds.

Step 4 턱 주변

입술 아래쪽의 움푹 들어간 부위를 밀착시켜 중앙에서 귀 밑 방향으로 5초간 가볍게 눌러준다.
Chin Area: Place the fingers on the depressed parts below the lips and gently press them from the center towards the ears for 5 seconds.

모든 걸 답을 ‘그릇’을 가진 작가

Christopher Maslon

크 리 스토 퍼 마 슬 론

제주 여행길에서 만난 할머니가 지어준 ‘민호’란 한국 이름을 자랑스러워하는 팝 아티스트 크리스토퍼 마슬론. 외국인치고 키가 작은 자신을 두고 동료 교수들이 “눈높이를 맞추기 편안해한다”며, 너스레를 떠는 그는 “최소한 50%는 한국인으로 살고 있다”고 했다. 유독 유쾌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과 진행 최태원 사진 전재호



현재 거주하고 있는 대전이란 도시와 고향을 비교한다면?

교육도시인 대전은 MIT, 보스턴대학교 등 동부 명문 대학들이 포진한 내 고향 매사추세츠와 닮아 있다. 나는 양키 캔들의 고향인 몬슨(Monson)이란 곳에서 태어났다. 콜럼버스 아트&디자인 칼리지에 장학생으로 다닐 때, ‘코리안 빌리지’의 한국인 소개로 대전의 대학교로 오게 되었다. 솔직히 처음 대전에서의 교수직 제안을 받았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겼지만, 사흘이 지나자 이번에는 내 거절이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내게 한국은 운명적이었다. 월드컵 열풍에 휩싸여 있던 지난 2002년에 한국에 왔으니, 세월이 꽤나 흘렀다.

앤디 워홀 등의 작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신의 작품세계를 설명한다면?

나의 장르는 엄밀히 말해 ‘네오팝’에 속한다.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앤디 워홀은 팝아트 작가이고, 네오팝이 시작된 건 1990년대로, 이미 그때 앤디 워홀은 없었다. 물론 보잘것없고 일상적인 것을 예술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점에서는 앤디 워홀이나 로이 리히텐슈타인, 로버트 라우션버그 등 팝아티스트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네오팝은 주제도, 경계도 없다. 그 무엇이든 네오팝이 될 수 있다.

훈민정음과 첨성대를 소재로 한 작품을 보았다. 이 두 소재의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운데, 어떤 의도였는지 궁금하다.

두 개의 다른 소재가 한 그림에 등장했다고 해서 꼭 연관성이 있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또 연관 지으려 노력할 필요도 없다. 첨성대와 훈민정음을 본 순간,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작품에 담았을 뿐이다. 만약 그게 훈민정음이 아닌 알파벳일 수도 있었다. 나는 무엇이든, 내키는 대로 섞기를 좋아한다. 많은 사람들이 작가에게 작품의 의미나 메시지를 묻는 경향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관객의 입장에서 작품을 보고 무엇이든 느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How would you compare Daejeon, where you currently live, to your hometown?

Daejeon, a city of education, is similar to my hometown in Massachusetts, the home of many renowned colleges such as MIT and Boston University. When I was studying at the Columbus Art & Design College on a scholarship, a Korean at the Korean Village introduced me to a college in Daejeon. Frankly, when I was first offered a teaching position in Daejeon, I thought it was ridiculous. Three days later, it occurred to me that what was ridiculous was for me to turn them down. I was destined to come to Korea. I came to Korea back in 2002 when it was still agog over the World Cup, so it has been quite a while.

I heard that you have been influenced by Andy Warhol and other artists. How would you describe your world of art?

Strictly speaking, the genre of my work would be ‘Neo-pop.’ I was directly and indirectly influenced, but Andy Warhol is a pop artist and Neo-pop began in the 1990s. Andy Warhol was already gone by then. You could say that I was influenced by pop artists such as Andy Warhol, Roy Lichtenstein, or Robert Rauschenberg, as I work with mundane and trivial things. But Neo-pop has no particular theme or boundary. Anything can be Neo-pop.

I saw your work on Hunminjeongeum and Cheomseongdae. It is difficult to find any connection between those two. What was your intention?

Just because two different subject matters appeared on one painting, they do not have to be connected. There is no need to relate them, either. When I saw Cheomseongdae and Hunminjeongeum for the first time, I thought they were beautiful so I captured them on my piece. It could have been the English alphabets. I love to



Telephone Series, Silkscreen on Plastic, 30x42cm, 2015

실크스크린 인쇄법을 즐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하필 실크스크린인지 설명해줄 수 있는가? 다른 기법도 사용하는가?

물론 수채화도 그리고 데생도 즐겨 한다. 보통의 미술학도들처럼 그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다 어느 날 실크스크린 판화를 처음 시도해봤는데, 탄성이 절로 나왔다. 이전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세계였기 때문이다. 찍혀 나온 컬러와 형태의 아름다움이라니! 손을 떼는 순간 완성된 그림에서 엄청난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컬러와 방향에 따라 작품이 달라지는 것도 묘미였다. 그림은 한 번 그리면 끝인데, 이견 아니었다. 변화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이 실크스크린의 비교할 수 없는 매력이다.

한국에서 외국인 작가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나는 스스로를 한국에 사는 외국 작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 '지혜'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딸을 낳았다. 내 몸의 절반은 이미 한국인이고, 내 몸속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느낀다. 사실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 생활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낯설었던 것들이 점점 익숙해지고, 그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한국인으로서 좀 더 강한 아이덴티티를 느끼게 된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 아티스트로서 한국의 전통이 어떻게 보전, 계승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학생들을 가르쳐보니 사실 우려가 크다. 신세대와 구세대가 단절되어 있다는 걸 자주 느낀다. 어머니 세대는 계절에 따라 김치 담그는 법을 안다. 모두 손맛이 다르다. 그러나 딸들 세대는 김치는 물론이고 추석 송편 빚는 법도 모를뿐더러, 아예 관심도 없는 듯하다. 이들에게 김치

mix whatever I want. Many people tend to ask the artists about the meaning or message of their work, but is it necessary? If the audience can feel anything from their work, I think that is enough.

I think you enjoy silk screen printing. Could you explain why? Do you use other techniques?

I also enjoy watercolor and pencil drawing, of course. I used to draw and paint as any other art student, but one day, I tried silk screen printmaking for the first time and I was wowed. It opened up a whole new world that I had not experienced before: the beauty of printed colors and shapes! I discovered tremendous beauty in pictures that were completed right at the moment when I took my hands off. It was also fascinating that the work changed according to the color and direction. A painting is done when you are down, but not with this. What makes silk screen incomparable is that it has endless possibilities to change.

What does it mean to live in Korea as a foreign artist?

I don't think of myself as a foreign artist living in Korea. I married a Korean and my daughter is named 'Jihye,' which is a Korean name. I feel that half of my body is already Korean and the blood of Koreans runs through my body. In fact, my love for my life in Korea is growing over time. As I get accustomed to what the strange and familiar with my experience of more of those things, my identity as a Korean gets stronger.



크리스토퍼 미술란 작가는 네오팝이라는 장르를 통해 서로 다른 주제의 섞기를 즐긴다. 그의 작품에는 그가 아름답다고 느끼거나 인상적이었던 사물이나 현상, 감정들이 투영되어 있다.



실크스크린 기법을 통해 변화무쌍하게 발현되는 그의 작품들. 그가 손을 떼는 순간 흥미로운 작품이 탄생한다.

는 집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제조되는 것이며, 송편도 마찬가지다. 안타깝다. 한국은 아주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온종일 손에 스마트폰만 잡고 화면을 바라보며 사는 세대는 그 아름다움을 모르는 듯하다.

스스로의 작품세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면?

아주 난해한 질문이다. 사실 내 작품세계를 하나의 범주로 규정짓기는 어렵다. 솔직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고, 굳이 공통분모를 찾자면 레트로, 또는 빈티지라고 할 수 있다. 나의 거의 모든 작품에는 내가 과거에 아름답다고 느꼈거나 인상적으로 보았던 사물이나 현상, 감정들이 투영되어 있다. 내 과거는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작품을 통해 현재로 이어진다. 어느 날 반짝하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들을 떠올리는 식이다. 그러면 그걸 그냥 작품에 담는다. 예전에 보았던 공사판 문구나 자판기, 할인매장의 잡다한 물건들, 포스터 등등.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운 것들이 작품의 주제가 되곤 하는 일이 내겐 아주 흔하다. 내가 자란 매사추세츠는 미국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곳인데, 나는 이상하게 저질 문화나 싸구려 물건에 끌렸다. 그래서 나의 그런 취향이나 생각을 밝히기 꺼리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 아무튼 돌이켜보면 모두 내 과거와 연관이 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솔직히 너무 바쁘다. 올해만 해도 다섯 개의 전시가 예정되어 있고, 그 중 하나는 현재 일본에서 진행 중이다. 미국과 크로아티아에서도 전시가 예정돼 있고, 곧 두 개의 전시를 오픈할 예정이라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15명의 외국인 아티스트들과 공동으로 DTAC 갤러리를 운영 중인데, 곧 규모를 넓힐 계획이고, 개인 작업실도 알아볼 생각이다. S

I wonder how you think the tradition of Korea should be preserved and promoted by foreign artists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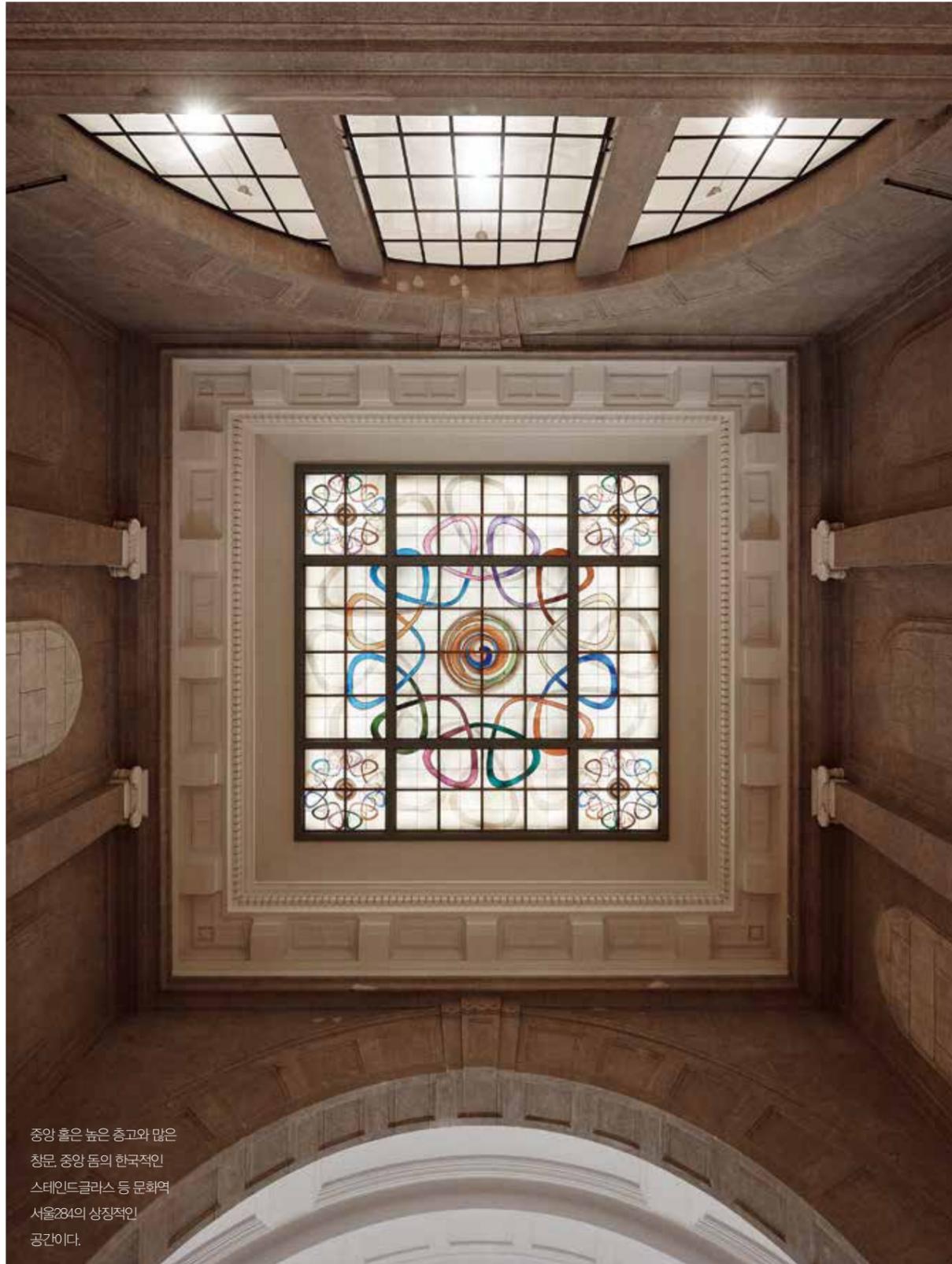
In teaching students, I actually get concerned. I often feel that the old generation is isolated from the new generation. This is sad. Korea has a very beautiful traditional culture. But the generation that looks at a smartphone screen all day doesn't seem to know that beauty.

How would you define your world of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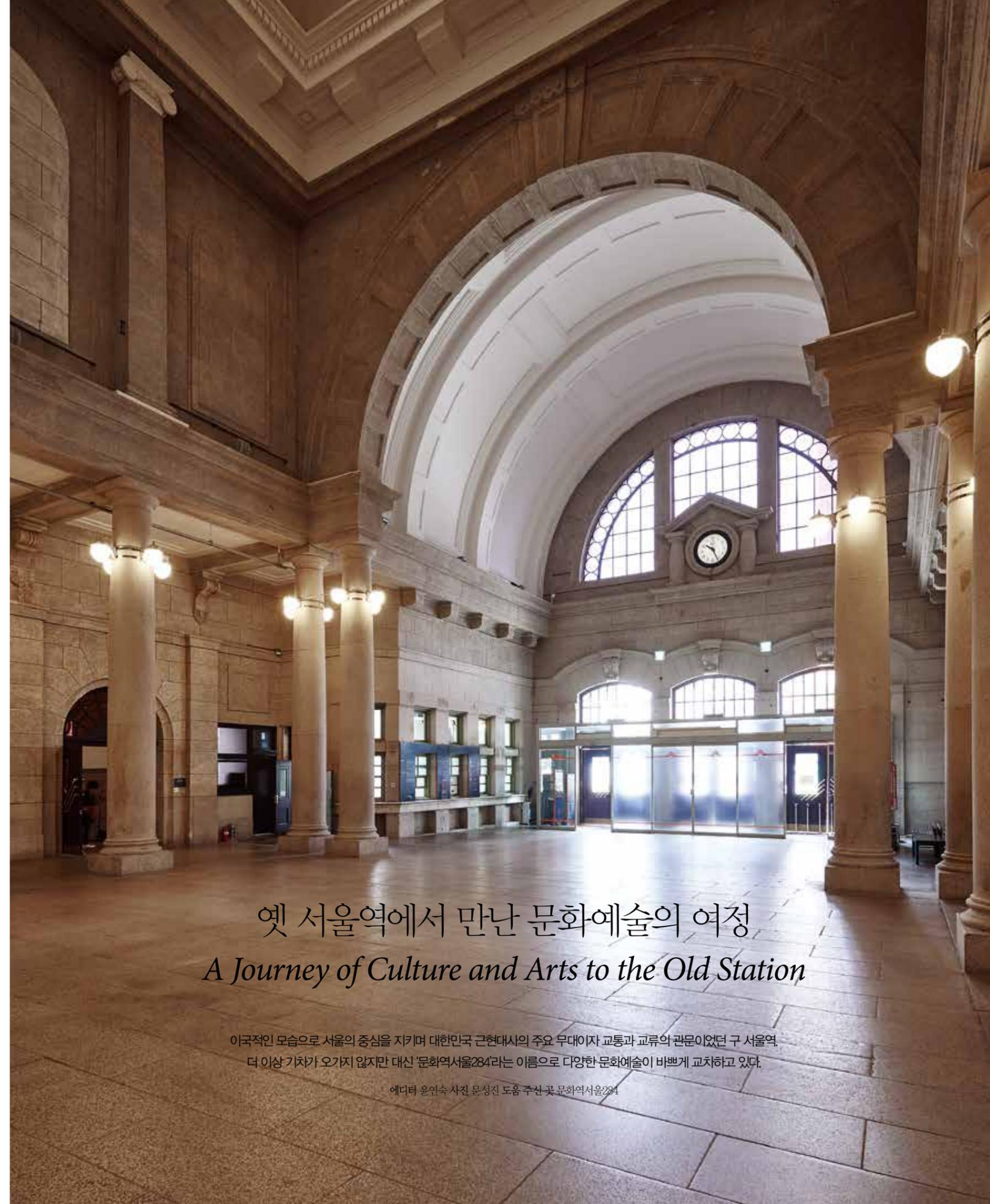
This is a very difficult question. In fact, it is hard to put my world of art into one particular category. I have not even thought about it. If there is anything common in my paintings, it would be their retro or vintage style. Almost all of my work reflects the objects, phenomena, or emotions I once felt were beautiful or impressive. My past is not in the past, but comes alive in the present through my work. It is like remembering something that shone one day and has been forgotten for a long time. When I remember something, I just put it on my work. A sign on a construction site, a vending machine, various things at a discount store, posters, and so on. These things that you often pass by unnoticed very often become the subject matters in my work. Massachusetts is a very conservative place, and I was always attracted to lavish culture or cheap articles. There were times when I was reluctant to tell anyone about my taste or thought. Now I do not fear talking about this aspect of me. Looking back, it is all related to my past.

I wonder what your plans are for the future.

Frankly, I am too busy. I am scheduled to hold five exhibitions this year, and one of them will be in Japan. I am also booked for exhibitions in the U.S. and Croatia. As two exhibitions will open soon, I am busy working on them. Besides those, I am operating DTAC Gallery with 15 other foreign artists. We are trying to find a larger place for the gallery, and I will also be looking for my own stud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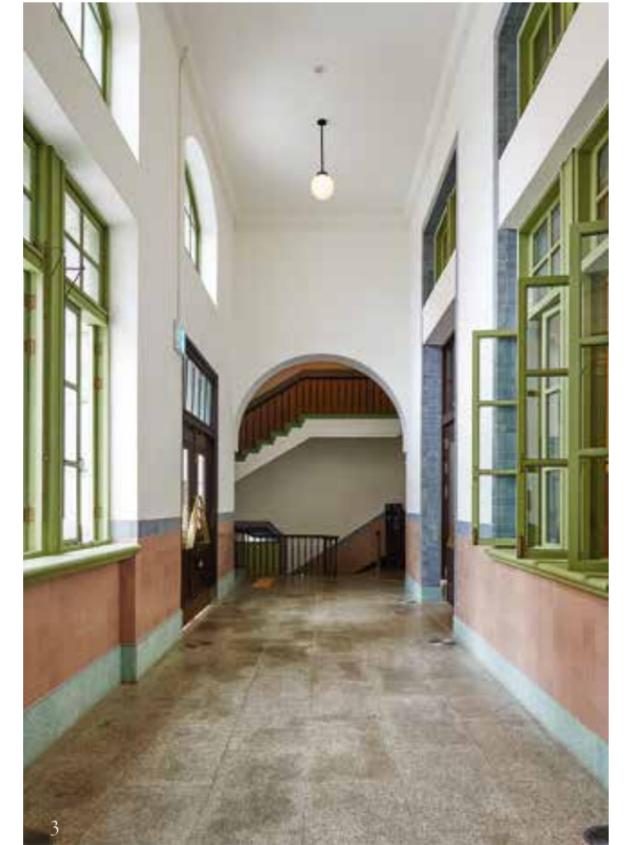
중앙 홀은 높은 층고와 많은
창문, 중앙 돔의 한국적인
스테인드글라스 등 문화역
서울284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옛 서울역에서 만난 문화예술의 여정
A Journey of Culture and Arts to the Old Station

이국적인 모습으로 서울의 중심을 지키며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주요 무대이자 교통과 교류의 관문이었던 구 서울역.
더 이상 가치가 오가지 않지만 대신 '문화역서울284'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이 바쁘게 교차하고 있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문성진 도움 주신 곳 문화역서울284



얼마 전 아시아프(2015 ASYAAF)를 성황리에 마치고 광복 70주년 기념 전시를 준비 중이라 한숨 돌리며 잠시 비어 있던 문화역서울284를 찾았다.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없어 조금은 허전했지만, 공간 자체가 주는 감상과 원형을 담아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되었다. 문화역서울 284에 들어서니 확 트인 중앙 홀의 웅장한 돌기둥과 한국적인 스테인드글라스의 천장 그리고 아치형 구조물과 어우러진 커다란 벽시계가 과거 이곳이 기차 시간에 맞춰 떠남과 돌아옴이 빈번했던 서울역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지금의 새로운 역사驛舎가 지어지기 전까지 구 서울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과 이별의 장소로서 희망과 애환, 욕망과 좌절 등 온갖 사연과 감정이 부유하는 공간이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주요 무대이자 교통과 교류의 관문이었던 공간은 이제 전통과 현대, 미래를 연결하는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재탄생하여 사람들을 맞고 있다.

문화역서울284는 지난 2004년 KTX 고속철도 개통으로 구 서울역이 기차역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시작됐다. 1925년 준공 당시의 모습을 복원 기준으로 삼되, 서울역의 지난 80여 년의 삶과 기억을 담고자 했다. 2011년 8월, 약 2년 동안의 복원공사를 마친 구 서울역사는 건물의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문화예술이 창작되고 교류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역동적이고 개방된 공간이 되어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공식 명칭 '문화역서울284'는 명칭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문화 스테이션 284'를 우리말로 바꾸고 서울이라는 지명이 갖는 상징성과

1 문화역서울284라는 이름을 단 구 서울역사는 이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다.
2, 3 계단의 타일과 창 복도 입구의 아치 등 준공 당시의 사진첩에 근거하여 원래 모습을 복원하였다.

After the recent success of 2015 ASYAAF, CULTURE STATION SEOUL 284 was emptied for a while to prepare for a special exhibition for the 70th Anniversary of the Liberation of Korea. It looked a little lonely because there was no program going on, but it offered a great chance to capture the first impression and the original form of the space itself. Stepping into CULTURE STATION SEOUL 284, the massive stone column in the open central hall, the Korean-style stained glass and ceilings, and the big clock on the wall with an arch structure clearly showed that it was Seoul Station, where in the past, many trains arrived and departed according to schedule. The space that used to be the major stage of the modern history of Korea and a gateway to transportation and interaction has become a hub of culture and the arts, which greets people by connecting the past and the present with the future. CULTURE STATION SEOUL 284 was created when the old Seoul Station lost its function as a train station with the opening of KTX Express Rail in 2004. It's restoration was based on the time of its completion back in 1925, and its contents tried to capture about 80 years of lives and memories in Seoul Station. The renovation of the old Seoul Station was completed in two years, in August 2011, and marked its new start as a dynamic and open cultural complex where various cultures and arts are created and exchanged, considering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building. The official



구 서울역사의 사적번호(284)를 결합해 탄생되었다.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총 3층 규모인 문화역서울284는 기차역으로서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개별 공간이 많다. 이러한 공간의 특성을 활용하여 전시, 공연, 컨퍼런스, 연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1층에는 중앙 홀과 매표소, 대합실, 귀빈실, 역장실 등이 자리하고 있다. 12개의 석재 기둥과 돔으로 구성된 중앙 홀은 문화역서울284의 주 출입구이자 중심 공간이다. 승객을 위한 공간이었던 3등 대합실과 1, 2등 대합실은 전시, 공연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귀빈실은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대통령까지 지방 출장 시 사용했던 공간으로, 현재는 영상물 상영과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2층에는 복원전시실과 그릴, 세미나실, 회의실 등이 있다. 특히 복원전시실은 예전에 이발실로 사용했던 공간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복원전시실이다. 구 서울역사를 원형 복원하면서 나온 부자재와 역사 자료들을 관람할 수 있다. 그릴은 우리나라 최초의 양식당이 자리했던 공간으로 과거 서양식 레스토랑을 상징하는 말로 통용되었을 정도로 유명했던 '서울역 그릴'이 있던 곳이다.

문화역서울284는 역사적 가치와 함께 건축적 가치를 온전하게 보존하며 그 가치를 문화예술이라는 매개체로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서울의 면면을 드러내는 공간으로서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다. S

1 우리나라 최초의 양식당인 '서울역 그릴'이 있던 자리로, 당시 음식을 나르던 주방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다.
2, 3 구 서울역사를 원형 복원하면서 나온 부자재와 역사적 자료들을 볼 수 있는 복원전시실 전시장 벽은 기존의 붉은 벽돌 구조체와 목조 구조를 노출시켜 당시의 시공 방법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했다.

name of the building, 'CULTURE STATION SEOUL 284,' was born by changing 'Culture Station 284,' the winner in the name contest held, into Korean and adding the symbol of Seoul and the number of the old Seoul Station as a historic relic (284). CULTURE STATION SEOUL 284 has three floors, including a basement. Its structure as a train station has been maintained, with a complex layout of many partitioned spaces where various programs, such as exhibitions, performances, conferences, and researches, can be held at the same time. The first floor houses the central hall, the ticket booth, the platform, the VIP lounge, and the administrator's office. The central hall consists of 12 stone columns and domes, and is the main entrance to CULTURE STATION SEOUL 284 at the center. The third-class platform and the first and second platforms for the passengers are currently used for exhibitions and performances. The second floor has the main exhibition hall, the Grill, a seminar room, and a conference room. The restored exhibition hall was used as a barber shop in the past and is the first restored exhibition of Korea. Here, you can visit the materials and historical resources found while restoring the old Seoul Station. CULTURE STATION SEOUL 284 wholly preserves the architectural value of the building along with its historical value, and shares such values with people through culture and the arts. It is firmly laying its roots as a space that exhibits various aspects of Seoul i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자연과의 동행으로 365일 청명한 숨을 쉬다 *Companionship with nature for 365 days*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나라지만 가장 파워풀한 경쟁력을 가진 싱가포르. 오랜 전통들 사이사이에 새로운 문화를 심어놓은 이곳에서 설화수는 한방의 역사를 간직한 새로운 뷰티 메세나로 크나큰 울림을 전하고 있다.

에디터 권지에 사진 백지현, 코비스



싱가포르 내 설화수 매장 입점 지역

아시아를 대표하는 설화수의 플래그십 스토어는 싱가포르의 역사·경제적 랜드마크이기도 한 캐피톨 빌딩의 특징을 최대한 살리면서 그 안에 설화수만의 색과 향기를 자연스럽게 녹여냈다.
 Add Capitol Building, 15 Stamford Road, #01-72/73 Tel 6844-9766

자연을 품은 도시 속에 피어오르는 한방의 향기

다른 듯 닮은, 서로 비슷한 매력으로 어필하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 중에서도 싱가포르는 유독 자연과의 특별한 동행을 고집한다. 끝이 보일 것 같지 않은 고공행진 건물들 사이로 100년을 훌쩍 넘긴 키 크고 덩치 큰 나무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시에서 20~30분만 차를 타고 나가면 야생에 가까운 자연을 만날 수 있다. 이렇듯 인간과 자연 그리고 건물이 서로 뒤엉켜 있는 듯하지만 서로가 공생의 미덕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도심 속에서도 호화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싱가포르다. 다양한 차원의 경험과 호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여러 스포트 중에서 캐피톨 싱가포르(Capitol Singapore)는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바로 이곳에 설화수의 100번째 글로벌 매장이자 싱가포르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가 들어서기 때문이다. 캐피톨 싱가포르는 시의 중심이라는 최적의 위치 환경과 더불어 세인트 루이스 성당, 시청사, 래플스 하우스, 싱가포르 경영대학 등의 랜드마크에 둘러싸인 싱가포르 최초의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개발지구다. 이번 설화수의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으로 싱가포르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가 이곳을 주목하고 있다.

The scent of Korean medicinal herbs at the heart of a city of nature

Among the many cities in Asia that attract people with similar tastes, Singapore is particularly known for its unique companionship with nature. Amidst its endless array of skyscrapers are rows and rows of tall trees over 100 years old. Furthermore, you can go out to the wild from the city in just 20-30 minutes by car. Singapore is a place where people, nature, and buildings seem to be entangled yet co-exist in harmony, allowing you to enjoy luxurious resorts at the heart of the city. Among the various spots for different levels of experience and luxury, Capitol Singapore has a special meaning. It's where Sulwhasoo's 100th global store, the Singapore Flagship Store has opened its doors. Capitol Singapore is Singapore's first luxury lifestyle district that is nestled right at the center of the city and is surrounded by a number of landmarks, including St. Louis Cathedral, the City Hall, Raffles House, and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With the opening of Sulwhasoo's Flagship Store, Capitol Singapore is attracting many people not only within Singapore but also from many different countries around the world.

싱가포르 플래그십 스토어의 설화수 뷰티 프로그램

설화수 싱가포르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설화수 스파 프로그램인 자음생·진설·자정 트리트먼트는 물론, 보습감이 뛰어난 에센셜 라인인을 활용한 에센셜 트리트먼트, 피부 깊숙이 수분을 채워주는 수물 트리트먼트 등 특별 뷰티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 **자음생 트리트먼트** 따뜻한 기운을 가진 자음생 라인인과 차가운 기운을 가진 옥의 조화로 영양감을 최대로 극대화한다.
- **진설 트리트먼트** 토털 안티에이징 라인인 진설라인을 활용해 노화된 피부를 재생시켜 이상적인 피부로 가꿔준다.
- **자정 트리트먼트** 칙칙한 피부 톤을 즉각적으로 밝혀주어 얼굴 전체에 균일하고 건강한 피부 빛을 선사한다.
- **에센셜 트리트먼트**
 (싱가포르 플래그십 스토어 매장 전용)
 보습감이 뛰어난 에센셜 라인인과 풍기성과 흡수력이 뛰어난 한지 마스크를 이용, 보습과 윤기를 선사한다.
- **수물 트리트먼트**
 (싱가포르 플래그십 스토어 매장 전용)
 피부의 수분 흐름을 조화롭게 하는 수물 라인인 정화 기능을 가진 백자 툴을 이용하여 피부 전반에 나타나는 건조 현상을 즉각적으로 해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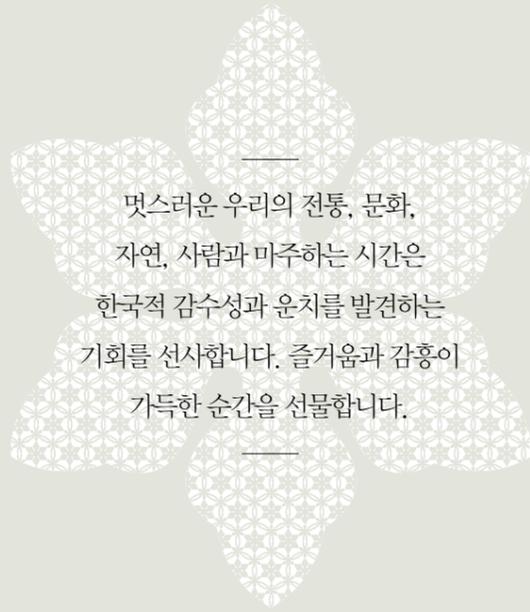
100 번째 글로벌 매장, 싱가포르 플래그십 스토어

싱가포르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뷰티 브랜드들의 각축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이다. 2012년 9월 탕스 오차드(Tangs Orchard)에 첫 번째 설화수 매장을 열면서 각축전의 양상은 설화수의 독보적인 선두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름다움을 향한 열망은 모두 같기에 진정성 깊은 제품들은 놀라운 효능과 함께 싱가포르 소비자들의 여심 속으로 쉽게 파고들 수 있었다. 그리고 2015년 7월 1일, 캐피톨 싱가포르에 설화수 100번째 글로벌 매장이자 싱가포르 플래그십 스토어가 문을 열었다. K 뷰티의 선두주자인 설화수의 입지와 격이 다른 한방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 번 강한 울림으로 전할 수 있게 된 것. 매장은 단순히 제품을 진열하는 형식적인 면을 넘어선, 설화수의 제품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토탈 홀리스틱 공간으로 모든 소비자가 직접 설화수와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매장 안에 들어서면 한방의 역사와 함께한 설화수의 이야기를 듣고 스킨케어 및 메이크업 전반의 설화수 제품을 체험해보며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비롯해, 스파 체험이 가능한 뷰티 라운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싱가포르는 물론 전 세계 고객들이 이곳에서 브랜드와의 친밀도를 높이고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진정한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S

컬러풀한 도심 속에서도 생명을
간직한 푸르름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싱가포르의 Day & Night.

The 100th global store, Singapore Flagship Store

Singapore is a place where beauty brands from all around the world compete vigorously. The competition began when Sulwhasoo's first store opened at Tangs Orchard in September 2012, and Sulwhasoo has been on top ever since. As everyone has the same passion for beauty, genuine products could easily capture the hearts of consumers in Singapore with their amazing efficacies. On July 1st, 2015, Sulwhasoo's 100th global store finally opened at Capitol Singapore. This will create once again a resonance of Sulwhasoo's leadership in K-Beauty and the quality beauty of Korean medicinal herbs. The store is a total holistic space that does not simply display the products but also gives consumers opportunities to experience and feel Sulwhasoo's products. Customers can communicate directly with Sulwhasoo. Once they step inside the store, they are assigned a space where they can listen to the history of Korean medicinal herbs and the story of Sulwhasoo, and experience Sulwhasoo's skincare and makeup products with counseling and a beauty lounge where they can experience the spa. Customers from all over the world could become more intimate with the brand and empathize with it to feel the true beauty of Korea.



멋스러운 우리의 전통, 문화,
자연, 사람과 마주하는 시간은
한국적 감수성과 운치를 발견하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즐거움과 감흥이
가득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가
미
다

A small, dark brown branch with two pine cones. The branch is positioned to the right of the vertical text, with the pine cones pointing towards the right. The pine cones are a light brown color and have a textured, scaly appearance.



Sohn

손 미 나

Mi Na

그녀가 던지는 삶의 질문들

그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생각해보면 아주 상식적인 것들이다. 기쁨은 무조건 뛰어가기를 멈추고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내고 있는지 점검하자는, 의미 있는 휴식의 제안. 이제 문을 열 '인생학교'의 디렉터를 맡은 것도 딱 그 연장선 상에 존재한다. 그녀가 던지는 낯설지만 인생에 꼭 필요한 질문은 이거다. '지금, 당신은 행복한가요?'

에디터 박지현 사진 박재형



그녀가 인생학교(The School of Life)의 서울지부를 맡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으로 손미나다운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그녀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오던 주제와 동일선상에 인생학교가 있었으니까. 아나운서에서 여행작가로, 다시 '손미나엔컴퍼니'의 CEO로서 해온 사회적 실천들은 따져보면 하나의 색깔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씩연구소'를 통해 소비가 아닌 휴식이 되는 여행 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파하는 중이다. 특히 올해에는 형편이 어려운 15명의 청춘에게 해외여행을 선물했는데, 그중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한 여학생은 이번 여행을 통해 삶에 빛이 들어왔다고 고백해 손미나를 감동시켰다. 회사의 결가자인 팟캐스트 <씩수다방>도 한창 잘나가는 중. 여행은 좋아하나 떠나지 못하는 청취자들을 위해 유명인사들이 자신들의 소소한 여행기를 들려준다. 귀만 열어도 단번에 유럽의 한적한 길모퉁이로 안내하는 특급 서비스다. 그러니까 그녀가 세운 회사에서는 '여행'이란 주제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다독이는 작업을 다양하게도 시도하는 셈이다. 곧 문을 열 인생학교는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이 지인들과 2008년 런던에 세운 뒤 9개 도시에서 운영하는, 일명 '어른들을 위한 학교'다. 그녀는 알랭 드 보통의 파트너로서 서울지부의 디렉터로 활동한다.

“인생학교는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감성 지식을 공유하고 그 능력을 어떻게 키워갈지 생각하는 공간입니다. 인생을 사는 데 꼭 필요하지만 어디 가서 물어보기 애매한 것들이 수업의 주제죠. 가령 혼자서 외롭지 않게 시간을 사용하는 법, 이별에서 빨리 벗어나는 법, 온라인 데이트에 성공하는 법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수업 주제는 정말이지 처음이지 않은가. 달콤하되 툭툭 튀며, 심지어 절실히 필요하기까지 하다.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처럼 누가 말을 꺼내면 숨이 턱 막히는 질문들이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오갈 것이다. 아무래도 초기 설립자인 알랭 드 보통의 자기고백만큼 설득력 있는, 이 학교의 존재 이유란 없을 듯하다. “세계 최고 대학 중 하나인 케임브리지에서 공부했지만 막상 사회에 나와 인생을 마주하게 되자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은 배우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다.”

이게 어디 알랭 드 보통만의 문제일까. 우리의 현재 모습이자 인간 손미나의 과거사이기도 하다. KBS 간판 아나운서로 종일토록 무엇인가 바쁘게 To Do List를 해치워나갔던 시절, 남들은 그녀에게 전성기라고 말했지만 스스로는 삶이 공허해 불안했다. 지금처럼 계속 산다면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내뱉게 될 듯싶어 두려웠다. 무조건 떠나자 싶었다. 당시 그녀는 스스로에게 낯설지만 가장 기본적인 삶의 질문들을 던지고 있었던 거다.

“주변에서는 걱정을 많이 했죠. 나중에 돌아오면 제 자리가 없을 거라면서요. 하지만 그동안 정말 열심히 했기에 고민조차 되지 않았어요. 당시 제가 한 방송을 모니터링한 비디오테이프만 1000개가 넘었거든요. 그토록 간절히 일했는데도 그 자리를 후배가 가볍게 채운다면, 나는 이 일을 떠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스페인에서 깨달은 것은 두 가지였다. KBS라는 직장이 얼마나 멋진 곳인가, 동시에 그 율타리가 없어도 여전히 살 만하겠구나 싶은 이중적인 감정. 특히 후자에 무게가 갔다. 손에 쥘 보석





을 내려놓아도 내 삶은 변함없이 멋질 수 있음을 깨닫자 무엇에도 도전할 수 있었다. <스페인, 너는 자유다>를 시작으로 연이어 여행을 출간하면서 베스트셀러 여행작가가 되었고, 다시 소설 <누가 미모자를 그렸나>를 세상에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글쟁이가 되었다. 웬만큼 지독하지 않으면 쓸 수 없다는 소설을, 그녀는 결국 완성시켰다. 이쯤에서, 그러니까 잘나가는 작가로서 삶을 좀 여유롭게 방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유럽에서 지내다 2012년 말쯤 귀국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즈음, 한 대학신문 기자의 희망 사항을 듣게 되면서 일이 좀 복잡해졌다. 청년 기자는 그녀에게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실천적인 활동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순간 저라는 사람에 대해 찬찬히 뜯어보기 시작했죠. 요리사로 치자면 전 꽤 독특한 재료를 많이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행을 통해 많은 사람을 만났고 과거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할 이야기도 많았으니까요. 그것들로 혼자만의 밥상을 차리기보다는 더 커다랗게 차려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게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좀 커다랗게 차린 밥상이 지금의 '손미나앤컴퍼니'다. 그리고 '가치 있게' 사용하겠다는 말을 지켜내듯 책을 통해, 씩연구소를 통해, 이제 인생학교를 통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고 한다. 물론 회사의 CEO, 인생학교의 디렉터, 소설가, 편집인 등 그녀에게 붙는 직함이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도 여전히 그녀가 삶을 채워가는 방식은 여행을 하고 글을 쓰고 책으로 펴내는 과정이다. 아나나 다를까, 그 바쁜 와중에도 그녀는 최신판 손미나의 이야기를 페루 여행기에 담아 곧 출간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역사학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온갖 미스터리가 가득한 마추픽추며 광활한 페루 사막은 오래전부터 그녀가 동경해오던 여행지가 아니었던가. 실제로 그녀가 체험한 페루는 감탄이 끊이지 않는 나라였다. 지금 한창 책을 쓰고 있기에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도 그녀는 “어제까지 제 마음은 마추픽추에 있었답니다”라며 경쾌하게 말할 만큼 인상이 강한 여행지였다. 생각만 해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웃음, 이야기를 들어보니 비로소 이해가 갔다.

“페루에서 제일 자주 했던 말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였어요. 가령 300톤의 커다란 돌덩이를 절벽 위로 옮겨 마추픽추라는 도시를 건설한 것도 믿을 수 없지만 페루의 고산지대 숙소에서는 립서비스 목록에 ‘산소(통)’가 있을 만큼, 나라 곳곳에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살아 있었거든요. 페루 여행기는 정말 다이내믹한 이야기들로 가득 찰 거예요.”

이제 바빠질 일만 남았다. 9월쯤 페루 여행기가 출간되고 10월이면 인생학교가 이태원에 문을 여니까 말이다. 심지어 소설도 다시 쓰겠다는 거대한 계획을 품고 있다. 다가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녀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변하지 않았다. 바쁜 걸음을 멈추면 삶은 신기하게도 더 선명하게 보인다. 그리하여 잠시 여행을 떠나도 좋고 혹은 인생학교의 문을 두드리면 인생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꽤 매력적인 휴식의 제안이 아닐 수 없다. S

메이크업 조원경(엔플로에 02-517-9111) 헤어 상근(엔플로에) 스타일리스트 안수명 도움 주신 곳 엔디엔텐(02-3447-7701), 루키버드(02-546-7764), 아브라함케이한글(02-518-4190), 지니킴(070-7435-5820)

여인의 정성, 手作의 절정

한 땀의 정성과 그림의 미학이 어우러진 규방공예품.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요긴한 쓰임은 물론 옛 손작업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은 장식품으로 사랑받고 있다.

에디터 권지에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왼쪽 꽃 모양 자수가 놓인 버전은 예지방, 색색이 자수한 누빔 오너먼트는 규방문화 연구소, 빈티지한 무쇠 다리미는 바바리아, 오른쪽 색색의 꽃 자수가 놓인 실때는 갤러미르, 삼베 조각보는 만복당.

실이 만들어낸 한 폭의 회화, 자수

치맛자락 위에 살포시 바선코에 앙증맞게 놓인 꽃과 그림 자수는 풍류의 멋을 알았던 옛 여인들의 운치 있는 감각의 표출이었으리라. 바늘을 날었다 빼고 실을 꿰고 끊으며 면을 매우는 규방공예의 으뜸으로 여겨졌던 자수. 실로 그리는 회화라고 불리며 장식뿐만 아니라 순수한 예술적 표현 수단으로도 여전히 높이 평가되고 있다.

소소한 일상의 노동이 작품이 되다, 침선

'침선針線'이란 바늘과 실이라는 뜻의 한자어로 바늘에 실을 꿰어 바느질하는 모든 일을 통틀어 부른다. 터진 부분을 꿰매고 찢어진 조각을 이어 붙이던 소소한 일상의 노동이 하나의 근사한 작품으로 이어지기에 곱절은 값진 의미를 가진다. 호롱불을 벗삼아 작은 것에도 정성을 다하던 마음이 새겨져 있다.



왼쪽 블랙 누빔 파우치는 규방문화연구소, 빈티지한 사각함은 만복당, 모시 소재로 만들어진 원형 거울 겸 목걸이는 조하나 작가 작품으로 아원공방, 앤티크한 유리병은 하우스라벨, 오른쪽 다양한 자수가 새겨진 골무는 규방문화연구소, 우드 바스켓과 실패는 만복당.

여성미와 영민함을 함께 엮어 만든 매듭

끈목을 이용하여 매고 죄며 여러 모양으로 만든 매듭 하나하나에는 여인의 슬기와 창조성 그리고 정교한 예술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33종에 이르는 다양한 매듭은 한결같이 한 올의 끈목을 굵적어 중심을 잡고 두 가닥의 끈을 질서 있게 엮어 만든다. 여러 매듭이 모여 하나의 문양을 이루는 장식적인 매듭은 가치와 실용의 이중적 매력을 발산한다.



왼쪽 호박이 달린 지마노 장식 노리개는 무형문화재 옥석(장신구)장 경기 18호 벽봉 김영희 선생님 작품으로 KCDF갤러리, 무쇠 재봉틀은 바비리아, 산호가 달린 장식 노리개는 무형문화재 옥석(장신구)장 경기 18호 벽봉 김영희 선생님 작품으로 예지방. **오른쪽** 천연 염색된 매듭 주머니는 한정혜 선생님 작품으로 니들스튜디오, 솔 달린 매듭 뱅글은 공평아트갤러리, 오벌 트레이는 하우스라벨

마음을 흔들며 붉게 타오르는 丹楓의 노래

출렁이는 황금 들판 위로 흩날리는 붉은 단풍잎은 평범한 일상을 물들이며 잔잔했던 마음속에 작은 파도를 일으킨다. 자연이라는 색채의 미술사가 그려낸 울긋불긋한 가을 풍경은 움직이는 노랫가락이 되어 보는 이를 들썩이게 만든다.

에디터 권자에 사진 이종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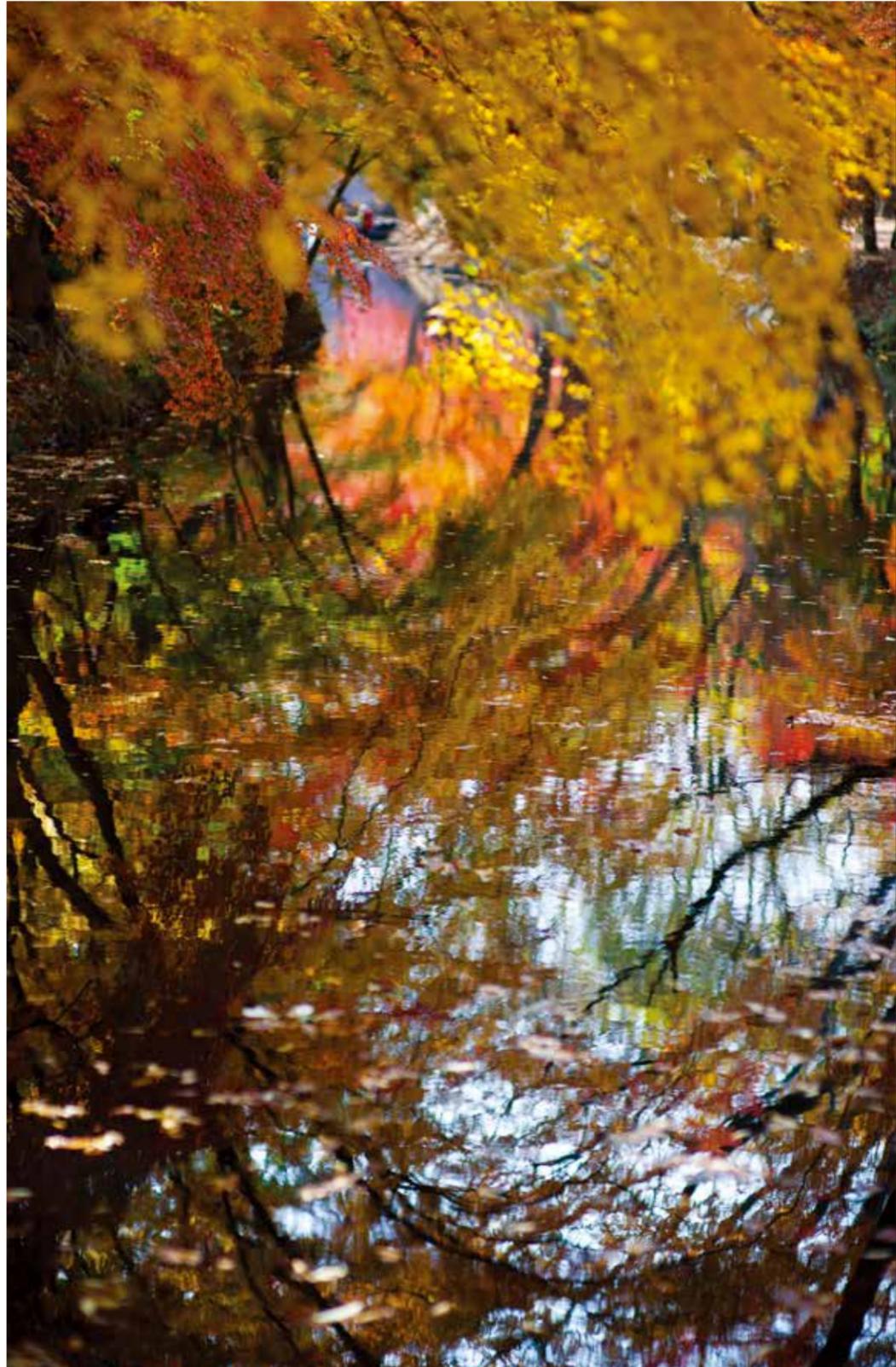
바람에 흔들리는 백양사의
붉은 가을이어라

산과 물 그리고 인간의 역사가 조화를 이룬 백양사에는 잎이 작고 색깔이 고운 당단풍, 즉 애기단풍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진다. 길게 뻗은 가지 따라 달려 있는 붉은 잎들은 마치 나비처럼 살포시 얽혀 있는 듯하다.



물속에서 피어나는
선운사의 단풍 그림자여

단풍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색, 바로
선운사에서 보고 느낄 수 있다. 색채의 향연이
벌어지는 이곳에서는 물에 비춰 아른거리는
모습마저 경이로워 보인다. 물, 바람 그리고
사람과 어우러진 조화의 아름다움이 끝도 없이
피어오른다.



속 깊은 촉촉함으로
내공을 쌓아 빛을 발하네

위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키는 물론 각질까지
말끔히 잠재워 주는 에센셜 밤의 키워드는 바로
홍화씨 오일.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되어
촉촉함이 오래도록 지속된다. 부드럽게 발리며
쫀쫀하게 입술 위에 안착. 생기 있는 입술로
만들어주는 에센셜 립세럼 스틱은 동백 오일
복합체를 함유해 풍부한 영양과 보습까지
제공한다.

이때 가을이 되면 유독 거칠어지는 몸에 바르는
기초 제품인 연섬 바디크림은 고보습의 꿀
성분을 함유. 극심한 피부 건조를 해소함은
물론 힘없이 처져 있던 피부의 탄력까지
가꾸어준다.

배려와 베품의 美德, 한가위

Hangawi: Nurturing the Virtues of Consideration and Sharing

송편과 전으로 하루를 보내던 한가위는 잠시 접어들 때다. 먹는 이의 건강까지 생각해 만든, 만든 이의 깊은 배려심이 돋보이는 칼로리 낮고 계절의 건강함까지 담은 색다른 추석미감(秋夕味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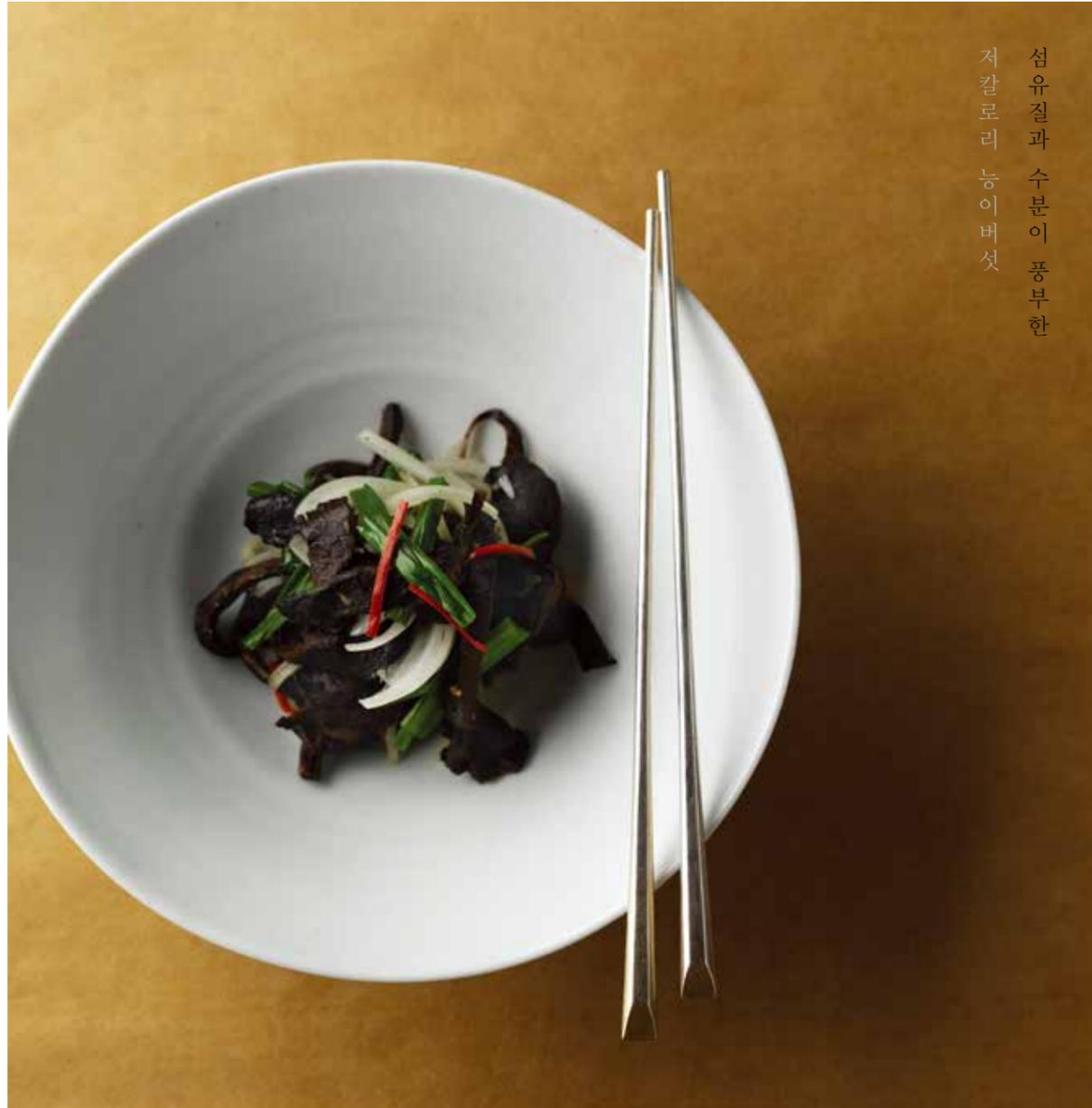
에디터 권지에 사진 이종근 푸드 아티스트 노영희

덥지도 춥지도 아니하여 살기 좋은 계절, 가을이다. 하지만 가을이라는 계절이 주는 흥 깊은 기운은 유독 낚씨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가을은 하늘과 땅이 빚어낸 축복이요 축제의 계절이기도 하다. 8월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이라 하여 한가위라 불리는 '여흥의 날'이 있기 때문이다. 겨울의 매서웠던 한파와 여름 뜨거운 폭염을 이겨내고 자란 풍족한 곡식들과 풍성한 과일들로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는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가득하다. 그 여유로움은 맛있는 음식을 함께 만들고 모두 나눠 먹는 협동과 공생의 따뜻한 삶으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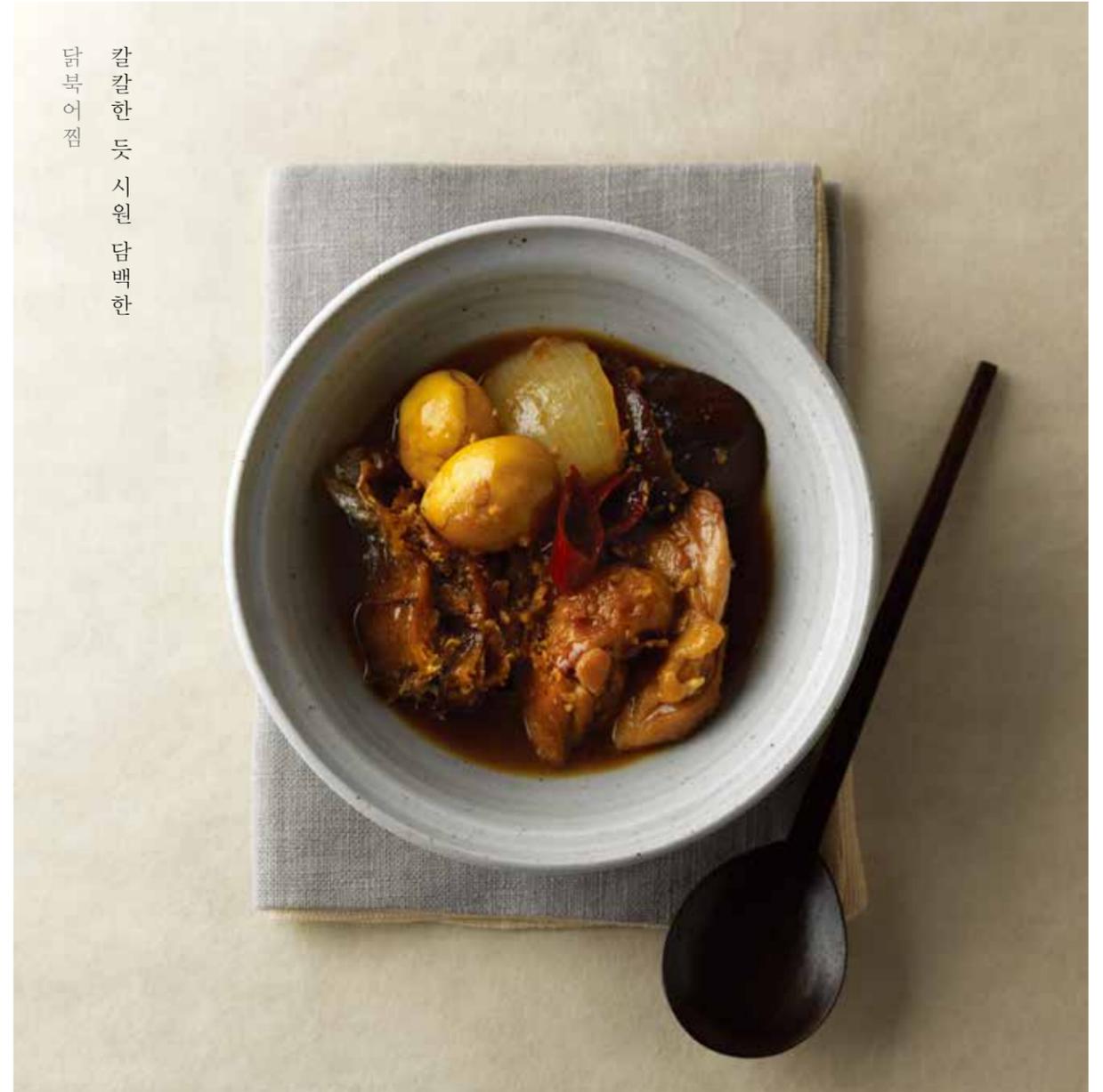
It is said, "May all days be like Hangawi." That is because Hangawi ("autumn" in Korean) is the best season of the year, as it is not too hot nor too cold. However, the exciting season of autumn is not just about the weather. Autumn is a blessing on the sky and land, and a season of festivals. Autumn is also the season of 'Hangawi: the Day of Amusement'. Hangawi is a big day in the middle of August. Everyone's heart is filled with joy and abundance with the grains and fruits that have grown through the severe cold of winter and the sizzling heat of summer. The abundance leads to the warmth of cooperation and coexistence, where all people gather to make and share delicious food.

영양 가득한
자연의 단맛
그리고
풋콩





섬유질과 수분이 풍부한
저칼로리 능이버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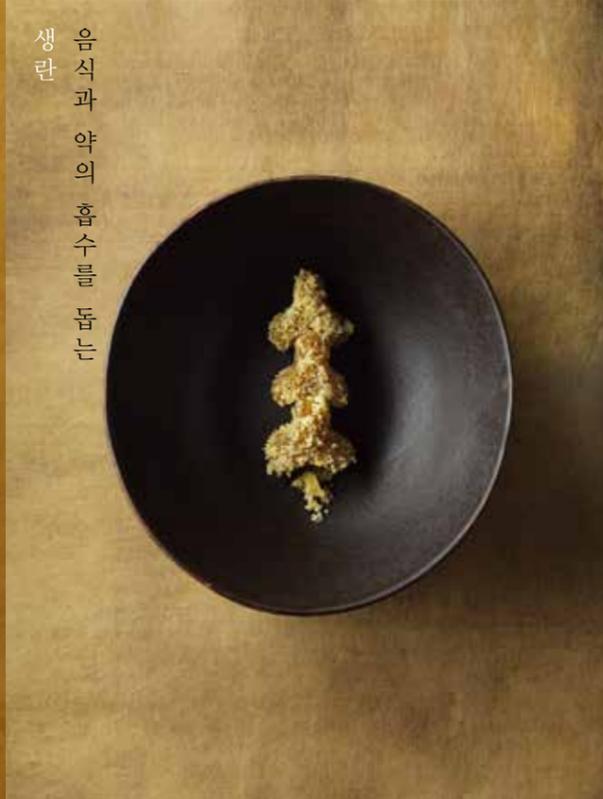


칼칼한 듯 시원 담백한
담복어찜

음란
입안
가득한
고소함



음식과
약의
흡수를
돕는
생란



새알심을 넣은 풋콩국 첫 번째 전채요리로 부담 없이 가볍게 마실 수 있는 풋콩국이다. 추석 즈음에 나오는 단맛 풍부한 풋콩을 삶은 후, 갈아서 면보에 내린다. 쫄깃한 식감의 찹쌀 새알심을 곁들여 먹는 재미를 더한다.

능이버섯 야채볶음 두 번째 전채요리로 독특한 풍미를 가진 능이버섯 야채볶음이다. 능이버섯에는 각종 비타민과 아미노산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참기름을 넣어 볶은 능이버섯에 따로 볶아놓은 야채를 섞는다.

닭볶어찜 봄에 태어난 병아리가 추석 때가 되면 적당하게 살이 오른 닭으로 자라기에, 예부터 추석 닭 요리는 소고기 요리보다 맛나고 깔끔하게 먹는 메인 음식으로 여겨졌다. 물에 불린 볶어와 찜을 하기 전에 부위별로 나눈 닭을 기름에 지지면 더욱 존득하게 먹을 수 있다.

올란 찜 밤의 속을 빼서 치즈 그레이더에 갈아준다. 여기에 꿀과 계핏가루를 넣고 잣가루를 묻혀 밤 모양을 만든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부드러운 식감 덕에 예부터 나이 불문하고 사랑받는 후식이다.

생란 생강의 매운맛과 꿀의 단맛 그리고 잣의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궁중의 상에 오르던 한과다. 다진 생강에 꿀을 넣어 생강이 투명해질 때까지 조리야 깊은 맛이 난다. 추석 후식으로 감기 예방에 좋은 생란은 조금씩 나눠 먹으며, 녹차와 잘 어울린다. S

Fresh bean soup with sweet rice balls The first appetizer is fresh bean soup, served as a light drink. The sweet fresh beans harvested around Chuseok are steamed, ground, and run through a cotton cloth. This soup is fun to sip with sweet and chewy rice balls.

Stir-fried Sarcodon aspratus and vegetables Sarcodon aspratus is rich in various vitamins and amino acids, and great for strengthening the immune system. Stir-fry Sarcodon aspratus with sesame oil and mix it with separately stir-fried vegetables.

Steamed chicken and dried pollack Because around Chuseok, chicks born in spring become healthy chickens, chicken dishes in Chuseok have always been considered tastier and better than beef dishes. You can have chicken that becomes even chewier and more tender when you chop it into pieces and pan-fry it in oil before steaming it with dried pollack soaked in water.

Yullan Steamed chestnuts are peeled and grated with a cheese grater. Then honey, cinnamon powder, and ground pine nuts are added to them and molded into chestnut shapes.

Saengnan This is a Korean snack that used to be served in the palace. It is made with the spicy taste of ginger, the sweet taste of honey, and the nutty taste of pine nuts. You can enjoy a richer taste when you add honey to minced ginger and boil it until the ginger becomes clear.



왼쪽 한지와 먹을 이용하여 만든 트레이 아선영&노경선 작가 작품으로 데카르트, 한지로 작업한 굵직한 트레이는 섬유예술가 김정식 작가 작품. 오른쪽 한지와 먹의 형상을 패턴화하고 PVC에 프린팅하여 사용 가능하게 만든 트레이는 아선영&노경선 작가 작품으로 데카르트.

윤택함으로 삶의 아름다움까지 충만케 하니

밝게 빛나는 얼굴은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윤택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함이 곁들여진, 피부 밖과 안으로 흐르는 윤키는 가을의 메마른 바람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강인함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생기를 전하고 있다.

에디터 권자에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자윤(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윤조에센스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모든 피부를 아우르는 에센스의 힘은 1997년에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피부의 균형을 다스리는 자음단[®]의 힘으로 탄생한 부스팅 에센스로 건조한 피부에 윤키는 물론 생기까지 부여한다. 기존 대비 180% 농축된 자음단[®] 성분이 노화에서 비롯된 피부의 자생력, 영양, 투명, 탄력까지 케어한다. **How to Use** 아침 저녁 세안 후 첫 단계에 사용하여 다음 단계 제품의 효과를 높여준다. 손바닥에 2~3회 정도 펴핑한 후 피부 결을 따라 손끝으로 퍼 발라준다.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얼굴을 감싸 흡수를 도와준다.



자음수와 자음유액
Essential Balancing Water & Emulsion

스킨 이상의 충분한 보습감으로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자음수는 끈적임이 느껴지지 않는 존득한 젤 타입의 스킨 자음유액은 매끄럽게 펴 발리고 말끔히 흡수되어 피부를 실키하게 마무리해주는 로션으로 피부를 유연하게 만들어 다음 단계 제품의 흡수율을 높여준다.

How to Use 아침, 저녁 윤조에센스 사용 후 자음수를 손에 덜어 피부 결을 따라 발라준다. 자음수를 바른 후 사용하는 자음유액 역시 손바닥에 적당량을 덜어 부드럽게 얼굴을 감싸듯 펴 발라준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향기를 오래도록 그리고 여러 방향으로 발향이 가능하게 한 한지 석고 방향제는 메이리 by 그레이트마이너, 산등성 모양의 한지는 전통한지공예가협회

탄력크림
Essential Firming Cream

피부에 바르는 순간, 존득한 밀착감이 높은 흡수력으로 연결 지치고 처진 피부에 스피드한 탄력감을 선사한다. 피부를 맑게 해주고 탄력을 선사하는 성분들이 더해져 피부에 감기듯이 흡수되어 놀라운 활력을 부여한다. **How to Use** 아침, 저녁 기초 손질 후 사용, 스페큘러를 이용하여 제품을 손바닥에 덜어낸 후 이마와 양볼, 콧등, 턱에 짝어 바른다.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두드리며 제품을 흡수시켜준다. 탄력이 필요한 부분에 덧발라 한번 더 두드려준다.



전통의 한지 제작 방법을 응용하여 만든 인체 작품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한지 바스켓은 빈컴퍼니 by KCDF갤러리, 격자무늬 한지는 정자방.

미안피니셔

Luminature Essential Finisher EX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도자기와 같은 매끄러운 윤기는 물론 손으로 만졌을 때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고운 톤과 결을 만들어주는 비밀은 바로 녹차와 인삼의 조화로 탄생한 녹삼효™ 성분.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하여 수분을 머금어 피부 자체의 힘을 강화시켜준다. **How to Use** 기초 화장 마지막 사용 단계에서 내용물을 두 번 펴핑하여 얼굴에 고루 얇게 펴 발라준다. 저녁 사용 시 이마, 미간, 뺨 부위에 덧발라주고 지압점을 눌러주면 제품의 깊고 빠른 흡수력에 윤기 역시 업그레이드된다.



달 형아리 모양이 투영되는 만월
한지 조명은 원영 김정순 작가
작품으로 종이나무갤러리,
한지로 된 굵 있는 불과 안에
있는 술잔은 심화숙 작가
작품으로 전통한자공예가협회



윤조에센스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새로운 뷰티 카테고리를 형성하며 한방 부스팅 에센스로서 품격과 명성을 쌓고 있는 윤조에센스. 2015년에 더욱 진화된 4세대 윤조에센스는 자음단™을 농축시킨 신규 기술로 한층 더 강력해진 부스팅 효과를 선사한다.

자음수와 자음유액 스킨케어의 기본 필수 라인으로 피부를 보필하는 힘은 어느 제품에도 뒤쳐지지 않는 효능을 발휘한다. 단지 피부의 결을 고르게 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것에서 벗어나 깊이 있는 영양감과 생기를 부여하여 전체적인 피부를 맑게 만들어준다.

탄력크림 안티에이징의 키워드인 '탄력'에 가장 충실한 제품으로 의이인을 포함한 옥죽, 백합, 진피 등의 한방 성분 효과를 최적으로 끌어올리는 '포제 밀자법'을 사용하며 만들었다. 피부에 착 감기 듯이 기분 좋게 밀착되어 피부를 인퐁으로 탄탄하게 잡아준다.

미안피니셔 설화수의 오랜 노하우가 담긴 녹차와 인삼을 피부에 맞는 최적의 상태로 조화롭게 가공, 탄생시킨 제품이다. 녹차와 인삼으로 빛은 녹삼효™는 스킨케어에서 느낀 부족함을 말끔히 채워주며 피부 타입에 상관 없는, 차원이 다른 윤기를 부여한다. S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arned a reputation for quality as the Korean herbal medicinal boosting serum. The new and improved fourth-generation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released in 2015 offers an even more powerful boosting effect with a new technology to increase the kinds and contents of active ingredients in JAUM Balancing Complex™.

Essential Balancing Water and Essential Balancing Emulsion The basic skincare line offers the highest level of skin refinement. It not only evens and emulsifies the skin texture, but it also deeply nourishes and vitalizes the skin to brighten the overall skin tone.

Essential Firming Cream It has been formulated with the Honeyed Process™ to maximize the efficacies of Korean herbal medicinal ingredients such as Adly Millet, Solomon's seal, white lily, tangerine peel, and more. It comfortably wraps your skin to fortify the inside and outside.

Luminature Essential Finisher EX This product has been formulated by optimizing and balancing green tea and ginseng, which are the ingredients that reflect Sulwhasoo's years of know-how. Noksamhyo™, the optimized green tea and ginseng formula, fills any skin deficiency with regular skincare and realizes the next level of radiance for any skin type.



넓음에 열정의 색과 선을 덧대다

Cuba Habana

쿠 바 아 바 나

에디터 권자에 사진 토크 이미지

불타오르는 태양에 질리 만무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열정을 녹이는 리듬과 흥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문호 헤밍웨이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쿠바는 여인의 향기보다 짙은,
낮선 그리움으로 모두를 설레게 하고 있다.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의 음악을 듣고 있노라면 쿠바 아바나의 골목 한 모퉁이, 시간으로 인해 허물어지고 벗겨진 낡은 건물 1층의 카페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쿠바는 마음에 짙은 잔상을 남기는 재즈 음악과 거친 듯 고요한 푸른 바다, 그리고 젊은 혁명가 체 게바라가 가졌던 열정이 잉태되고 뒤영기며 ‘쿠바’만의 색을 만들어냈다.

얼마 전, 쿠바의 수도인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이 재개설될 것이며 수많은 미국 항공사들이 쿠바 직항편을 준비해놓고 대기하고 있다는 상황이 전해졌다. 이제 지난 반세기 동안 정지해 있던 쿠바의 문이 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메리카에서 유일한 공산주의 국가로, 외부 세계로의 일시 정지는 쿠바만이 간직한 예술의 격을 한층 더 독특하고 깊게 이끌어주었기에, 어쩌면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문이 열린 후의 쿠바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문이 열리기 전 쿠바는 ‘낡았다.’ 이 편견은 편견이 아니다. 실제 쿠바는 오래돼서 낡은, 그래서 더 멋진 운치와 맛을 자랑하는 곳이다. 시계를 몇 년 전도 아닌 수십 년 전으로 되돌리고 정지시켜놓은 듯한 쿠바 아바나 거리에서는 순간을 멈추게 하는 건축물들이 가장 먼저 보는 이의 시선을 잡아끈다. 길을 걷다 고개를 조금만 위로 찻히면 만나게 되는 아바나 건축물의 매력은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시작된다.

쿠바는 남아메리카에 위치해 있지만 스페인의 흔적이 곳곳에 스며들고 배어 있으며 공산화 이후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며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탓에 시대별로 다양한 양식의 건물들이 고스란히 남아 ‘낡아가고’ 있다. 이렇듯 쿠바의 건축물은 스페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프랑스의 영향으로 경제가 번창하던 때에는 아르데코와 아르누보 양식의 건축물들이 많이 지어졌다.

쿠바인들의 색채 감각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쿠바 예술의 진원지다. 뜨거운 태양에 기죽지 않을 더 강렬한 색감의 축제는 건축물만이 아닌 거리 곳곳에서 펼쳐진다. 고스란히 간직된 오래전 건축 양식에 덧입혀진 화려한 컬러는 고전적인 우수함과 아름다움을 재생시킨 네오클

While listening to the music of Buena Vista Social Club, you'll feel like you're sitting at a café on the first floor of an old building that has seen better days in Havana, Cuba. Cuba has created its unique color with its jazz music that lingers in our hearts, its rough yet calm seas, and the passion of a young revolutionist, Che Guevara. A few days back, it was announced that the U.S. Embassy will reopen in Havana, the capital of Cuba, and now, many U.S.-based airlines are getting ready to fly directly to Cuba. Cuba is preparing to open its doors after half a century of isolation. This may not be good news in some way, however, as Cuba's isolation from the world as the only communist state in America has made the country's original art more unique and deeper. The streets of Havana, which seem to have turned the clock back several decades ago, draw attention with the buildings that make you hold your step. The beauty of the buildings of Havana, which you can see when you lift your head slightly on the street, comes from a page in history when Cuba was a colony of Spain. Cuba is located in South America, but the Spanish culture is written all over it. As the cities have not been developed due to the serious economic hardships that the country has faced since its communization, the various-styled historical buildings remain and are "aging." The buildings of Cuba were most strongly influenced by Spain, but many Art Déco and Art Nouveau buildings were also built when its economy flourished with the influence of France. The color sense of the people of Cuba is also an important source of Cuba's art. The festivals of intense colors that are hotter than the scorching sun are held not just in the buildings but at many street corners. The bright colors added to the old architectural styles represent the essence of the neo-classical style, which has restored the classical excellence and beauty. Havana, Cuba, which has patched the old with their own senses and styles rather than with something new, is largely divided



1 Harmonious Havana, 한성필, 2015, Installation, 28x33m.

*2015 쿠바 아바나 비엔날레에 초청된 한성필 작가의 설치 작품. 한국의 국보 112호 '경주 감은사지 삼층 석탑'이 프린트된 가림막이 안정과 평화의 염원을 담아낸다.

2 그저 빈티지한 멋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깊은 감성을 품고 있는 아바나의 거리.



대문호 헤밍웨이가 자신의 집을 갖기 전 머물렀던 호텔에는 아직도 그를 찾는 수많은 이들의 행렬이 이어진다.

래식의 진수를 보여준다. 이렇듯 낡음에, 새것이 아닌 그들만의 감각을 덧댄 쿠바 아바나는 크게 3구역으로 나뉜다. 센트로 아바나와 올드 아바나 그리고 베다도 지역. 카피톨리오 광장이 있는 센트로 아바나 지역은 아바나의 심장으로서 거리에서는 수준 높은 그림을 그려 파는 무명 화가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아바나 비에하(Habana Vieja)'라고도 불리며 1982년 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올드 아바나. 이곳엔 대성당 광장과 무기 광장, 도시 박물관 그리고 식민 시대의 미술 등 중세 아바나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어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묘미에 젖어 든다. 여기에 쿠바 아바나를 말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 바로 미국의 문호 어니스트 헤밍웨이이다.

쿠바에 살았던 20년 중 7년을 아바나에서 지내며 많은 작품을 집필하였고 저녁이면 바에서 모히토를 즐기며 삶의 즐거움을 만끽했던 헤밍웨이의 쿠바는 시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살아 있는 그림으로, 소설책으로 그리고 영화 같은 한 장면으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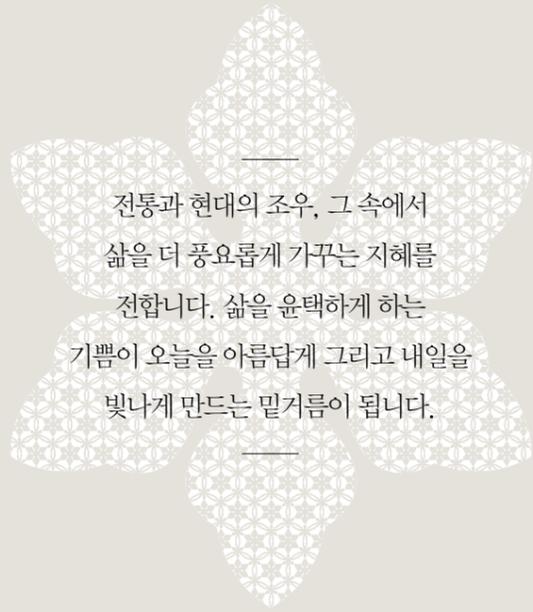
into three zones: Centro Havana, Old Havana, and Vedado. Centro Havana with Capitolio Nacional is at the heart of Havana; there, you can easily find many anonymous painters who paint and sell quality artworks on the streets. The Old Havana district, also known as "Habana Vieja," was designat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in 1982. The remains of Havana from the medieval times, including the Cathedral Square, the weapon square, the city museum, and the art from the colonial period, can be seen everywhere in the city, taking one on a trip back in time as one walks on the streets. There's also a man you can't but mention when you're talking about Havana, Cuba: Earnest Hemingway, an American writer: Of the 20 years he spent in Cuba, seven were spent in Havana, where he wrote many novels. He immensely enjoyed a glass of Mojito in the evenings as one of the pleasures of life. Hemingway's Cuba is still breathing, most vividly in paintings, novels, and movie scenes.



인삼의 모든 생명력을 채울 때 비로소, 피부는 힘있게 살아난다

설화수 자음생크림

인삼은 뿌리와 열매까지 모두 사용할 때 피부에 전해지는 효능이 강력해집니다
인삼의 모든 생명력을 풀어넣어 피부를 힘있게 되돌려주는 설화수 자음생크림. 설화수의 세계 최초 바이오컨버전 기술이
인삼 효능성분을 피부 깊이 흡수시켜 피부의 힘을 탄탄하게 되돌리고, 피부 속부터 윤택한 기운을 차오르게 합니다
인삼의 강한 생명력을 피부 속까지 채울 때, 피부는 다시 힘있게 살아납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우, 그 속에서
삶을 더 풍요롭게 가꾸는 지혜를
전합니다.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이 오늘을 아름답게 그리고 내일을
빛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인생의
맛



붓질에 담긴 ‘법고창신’을 보다

캘리그래피스트 이규복

국내 캘리그래피스트 1세대인 이규복 작가는 한글을 디자인 예술로 승화시킨 주인공이다. 개성 가득한 손글씨로 아름다운 한글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는 캘리그래피가 하나의 문화로 인식되고 정착되길 소망한다. 그의 손끝에서는 한 자에 꽃이 피고, 한 자에 바람이인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이은숙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캘리그래피를 수없이 만난다. 영화와 TV 방송, 광고, 포스터와 슬로건, 제품 패키지, 기업의 CI와 BI, 출판물, 간판 등 언젠가부터 캘리그래피는 우리에게 익숙함을 넘어 친숙하다. 캘리그래피(calligraphy)는 ‘아름다운 서체란 뜻을 지닌 그리스어 칼리그라피아(kalligraphia)에서 유래했다. 캘리그래피는 손으로 쓰기에 아름답고 개성적인 표현이 가능하다.

17대, 18대 대통령 취임식 슬로건에서부터 광화문광장 개장 기념식 슬로건, 다수의 기업 CI와 BI 작업 등 국내외 굵직한 대형 프로젝트 작업을 진행한 캘리그래피스트 이규복 작가는 글씨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세상이 각박해지다 보니 손글씨인 캘리그래피가 친밀감이나 정성을 좀 더 깊이 있게 전달하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분들도 더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캘리그래피는 평면적인 글자들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준다고 할까요? 쓰는 사람에 따라 독특하고 창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글씨입니다. 또 누구나 쉽게 글씨를 창조할 수도 있고

요.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감성 디자인을 이용한 마케팅에 지속적으로 주목하는 만큼 아날로그적인 편안함과 디지털적인 세련미가 조화를 이뤄 아름다운 이미지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캘리그래피의 쓰임새는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캘리그래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더욱 견고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사는 세상의 다양한 감성과 감정을 따뜻하게 감각적으로 풀어내는 캘리그래피는 매력적이다. 타이포그래피(typography)로는 표현할 수 없는 우연의 효과와 재료의 질감이 말과 글에 싱싱한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서예의 부흥을 꿈꾸던 서예학도의 열정과 노력

이규복 작가가 서예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은 고등학교 시절 서예 동아리에 발을 디디면서부터다. 당시 학교에서 1인 1동아리에 가입해야

* 법고창신(法古創新):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으로, 옛것에 토대(土臺)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 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대학교 때 서예를 전공하게 되었고,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캘리그래피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것. 최근에는 불모지 상태인 캘리그래피 이론의 정립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1990년대 말부터 서예계에서는 대중화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서예 학원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서예계의 침체가 심화되자 학회에서까지 서예의 대중화와 부흥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이야기 중 하나가 ‘간판을 모두 서예로 바꿔야 한다’였어요. 하지만 서예가들의 글씨 값과 간판업자들의 비용 차이는 두 배 이상이었으니 거의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서예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 끝에 나온 방법이 글씨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었어요. 당시 제가 원격대학에 있었는데, 약 2년여 간의 작업 과정을 거쳐 붓으로 쓴 1만 5000자 정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캘리그래피와의 인연이 시작된 것이지요.”

이 작업을 통해 이규복 작가는 ‘대한민국 벤처창업대전’에서 장려상을 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2003년에 캘리그래피 회사 ‘캘리디자인’을 설립했다. 또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국보 제205호 중원고구려비(中原高句麗碑) 등 전국에 산재해 있는 비석을 찾아다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답사기를 모아 책을 출간했다. 직접 발로 뛰며 촬영한 비

문(碑文)의 이미지와 자신의 감상을 더해 우리나라에 현존하고 있는 비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널리 알리고, 옛 선인들의 훌륭한 글씨체와 조각 솜씨를 전달하고자 했다.

“비석에는 옛 선조들의 뛰어난 글씨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야외에 자리하다 보니 비바람에 훼손되고 점점 사라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어 있지만 비에 쓰인 글자 자체에 대한 관심은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설화수와 의 인연, 한국의 미, 전통과 현대의 조화

글씨의 조형적 아름다움과 작가의 크리에이티브가 만나 발현되는 공명은 캘리그래피가 얼마나 자유롭고 예술적인 작업인지를 깨닫게 한다. 이규복 작가의 작업을 들여다보면 한국 무용의 특징처럼 정중동(靜中動), 동중정(動中靜)의 미가 담겨 있다. 글 자체에 담긴 내용도 내용이지만 글씨 자체에 한국의 아름다움이 서려 있는 것. 글씨와 글씨의 호흡이 순리로운 그의 글씨는 물이 흐르는 듯한 자연스러운 붓의 힘과 멋이 배어 있다. 그는 한동안 <설화수> 매거진에서 이런 자신의 필체와 필력을 담대하게 펼쳐 보였다.



이규복 작가가 설화수와 함께 제작한 윤조에센스 광고(2014년 1월 일간지 게재)

“2003년에 <설화수> 매거진과 인연이 시작됐어요. 글과 그림이 어우러진 문자도文字圖 작업을 했습니다. 문자도는 원래 ‘孝, 孝, 忠, 忠, 信, 信, 禮, 禮, 義, 義, 廉, 廉, 恥, 恥’ 여덟 자를 여러 가지로 도식화하여 변형한 우리 민화의 한 종류입니다. <설화수> 매거진에서 이 문자도를 응용하여 해당 칼럼의 주제에 맞게, 글자와 그에 따른 상징물을 조합해 설화수만의 문자도를 만들었습니다.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의미 깊고 재미있는 작업이었어요.”

<설화수>와 작업한 문자도는 액자 표구되어 작업실 한 벽면을 장식하고 있다. 그는 문자도뿐만 아니라 먹그림과 한글 캘리그래피가 어우러지는 작업을 <설화수>에서 처음 시도해보았다. 먹의 농담을 활용해 그린 설화수 제품과 제품의 특성을 드러내는 한 줄의 카페에 감성과 숨을 불어넣은 그의 작품은 몇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세련되고 아름답다. 그는 한 번 붓을 대면 수정이 어려운 먹그림 작업이 쉽지 않았지만 <설화수>와의 작업이 캘리그래피 진화의 한 부분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캘리그래피는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적 요소를 융합한 디지털

(digilog)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의 붓글씨와 현대의 디자인 툴의 조화, 그 접점을 찾아 전통이 이어진 현대의 문화예술 콘텐츠가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좋은 캘리그래피는 무엇일까? 이제 캘리그래피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좋은 캘리그래피의 특별한 조건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글씨의 기본을 아는 것은 중요해요. 궁체宮體에 대한 이해, 한글 쓰기의 방법과 약속을 아는 것이죠. 글씨를 알고 쓰면 좋은 글씨가 되지만 글씨를 모르고 멋에만 치중하는 글씨는 소위 말하는 막글씨가 됩니다. 붓을 들고 손으로 썼다고 해서 모두 캘리그래피로 부르기는 어려워요. 초창기에는 캘리그래피의 저변 확대를 위한 대중화에만 힘썼어요. 그러나 캘리그래피가 하나의 문화가 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캘리그래피인 것과 캘리그래피 아닌 것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경계가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캘리그래피 이론을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아직 캘리그래피 분야에 체계적인 이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론이 뒷받침되어야 캘리그래피가 좀 더 성숙한 문화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한국 캘리그래피의 거대 담론에 대한 포부도 있지만 그는 여전히 캘리그래피가 일반 대중에게 가깝게 느껴지길 바란다. PC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점점 글씨를 쓰는 기회가 줄어드는 지금, 일부러라도 글씨를 쓰게 하는 문화는 필요하다.

“글씨를 잘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글씨를 쓸 기회가 별로 없으니 글씨 쓰는 실력이 줄어들고, 글씨를 못쓴다는 이유로 글씨 쓰기를 더 멀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글씨를 빠르고 쉽게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공간을 균등하게 나눠 쓰는 것이에요. 제 강의 첫 시간에도 수강생들에게 항상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글씨에도 품격이 있다
격조 있는 글씨와 함께 하리라

이규복 작가는 올해 초 <캘리그래피 교과서-이론과 실전까지 캘리그래피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펴냈다. 지금까지 캘리그래피 관련 서적

들이 다루지 않았던 캘리그래피의 역사와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또 한국 캘리그래피가 상업적인 측면만 강조되면서 본래의 개성과 색깔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지금, 앞으로 캘리그래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모색을 담았다. 그의 꿈은 살아생전에 캘리그래피에 관한 책 열 권을 집필하는 것이다. 현재 일곱 권을 집필했으니 앞으로 세 권을 더 완성하면 된다. 또한 좀 더 격조 높은 글씨를 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글씨에도 품격이 있다. 사람들이 글씨에 품격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 그는 품격 있는 글씨를 쓰고 싶고 알고 싶어한다. 굳이 글에 담긴 뜻을 해석하지 않더라도 글씨 자체로 격식과 운치를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그는 늘 모든 일상에서 배움을 얻고 글씨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규복 작가의 글씨에는 뻗어나가는 국력도 담겼고, 여느 사람의 환한 웃음도 녹아 있다. 때로는 붉은 옷을 갈아입은 가을의 정취도 들어 있다. 그의 손끝에서는 오늘도 아름다운 한글이 은은한 묵향墨香을 지닌 채 그윽하게 피어난다. S

곱게 감싸는 마음이 깃들다

화려하지도 유별나지도 않지만 자연스럽다. 보자기는 물건의 크기나 형태에 상관없이 무엇이든 너그럽이 감싸 안는다. 두루두루 쓰다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작게 접어 서랍에 넣어두면 그만이다. 보자기에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융통성이 오롯이 담겨 있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뷰로 드 플로디아

참고도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규방 문화>(현암사)

언제부터가 특별하지 않은 일상용품으로 치부되어 별다른 관심과 대접을 받지 못했던 보자기. 그러나 보자기를 찬찬히 살펴보면 네모난 천 속에 담긴 우리 선조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독창성,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아름다움, 정성과 따뜻한 배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 시인 김춘수(1922~2004)는 자신의 글 '보자기의 미학'에서 "우리의 보자기에는 몬드리안이 있고 파울 클레도 있다. 현대적 조형 감각을 유럽을 훨씬 앞질러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그 표정은 그지없이 담담하다. 마치 잘 갠 우리의 가을 하늘처럼 신선하다"고 보자기를 바라보았다. 그의 말처럼 조각 천을 이어 붙여 만든 보자기인 우리의 조각 보는 무명의 여인들이 이리저리 덧대어 만들었지만, 20세기 추상주의 회화의 대가 몬드리안과 파울 클레의 작품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미적 감각이 뛰어나고 아름답다.

규 방 에서 태 어 난 실 용 미 학

보자기는 감싸는 물건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제 형태를 달리한다. 2차원의 평면인 보자기는 다양한 3차원의 물건을 소화해낸다. 동그란 것

을 싸면 둥글어지고 네모난 것을 싸면 네모꼴이 된다. 넓이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라면 무엇이든 감싸 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자기다. 또 감싸는 방식 또한 자유롭다. 손 기는 대로 보자기의 마주 보는 양 귀를 묶어도 좋고, 네 귀통이의 끝을 번갈아 교차시켜 땅아 모양을 내거나 손잡이용 고리를 만들 수도 있다. 반듯하게 물건을 싼 후 묶은 귀의 끝을 매듭 속으로 집어넣으면 단정하고 깔끔한 포장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전통 규방공예품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보자기도 일상 생활에서 필요에 의해 생겨났다. 직조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 옷감이 매우 귀했던 조선시대에는 옷을 짓거나 사용하고 남은 천인 자투리를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는데, 이것이 곧 아름다운 보자기 재료가 되었다. 우연성이 가져온 조합은 신선하고 독창적인 이미지로 탄생되었다. 자투리 천을 이용하다 보니 색상이나 소재 등이 대부분 주어진 조건 속에서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때로는 강렬한 원색 대비로, 때로는 은은한 바탕색의 중간중간에 원색을 배치한 조합으로 아름다운 추상의 세계를 실현하고 있다. 일부러 좋은 천을 마련해 앞뒤 색을 달리해 두 겹으로 만들거나 자수를 놓아 보자기를 완성하기도 했다. 보자기는 이동과 운반을 위한 가방의 역할에서부터 물건을 싸서 보관



펼쳐져 있는 삼베 조각보는 민복당. 묶여 있는 삼베 조각보는 원영 김정순 작가 작품으로 종이나무갤러리.



초록색 연보라색 보자기는 호호당, 주홍색 보자기는 원영 김정순 작가 작품으로 종이나무갤러리, 빨간색 복주머니는 해브빈서울.

하는 것은 물론 예절과 격식을 갖추는 의례용으로도 널리 사용되어왔다. 가리는 것, 덮는 것, 받치는 것, 장식하는 것, 상징적인 것, 신앙적인 것 등 그 쓰임새가 다양했다. 밥상보, 이불보, 횃대보 등에서부터 혼례용, 불교의식용으로도 쓰였고 기우제를 지낼 때 제단을 치거나 조상의 영정을 싸두는 등 특수한 용도로도 사용되었다.

복락 기원의 마음이 한 폭의 보자기가 되어

보자기는 한자로 복袱, 보綴, 보褙 등으로 표기하는데 조선 중기에 간행된 문헌에는 '보褙'로, 후기에는 주로 '보褙', '보자褙子', '복褙' 등으로 쓰였다. 특히 보자기 '褙' 자와 같은 음인 '褙'이 보자기를 지칭하는 말로 쓰였는데 여기에서 복락을 기원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전통 보자기는 사용 계층에 따라 궁중에서 사용된 '궁보'와 민간에서 사용된 '민보'로 크게 나뉜다. 보자기 본래의 기능은 같으나 궁보는 화려하고 세련되며 고급스러웠고, 민보는 투박하고 담백했다. 제작법에 따라 보면 안감을 대지 않은 '홀보', 안감과 겹감 두 겹으로 된 '겹보', 깨지거나 험하기 쉬운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솜을 두고 안감을 덧댄 '솜보', 누벼서 만든 '누비보', 천 조각을 이어서 만든 '조각보', 바탕천에 식지(기름종이)를 대거나 식지만으로 만든 '식지보' 등으로 나뉜다. 또 문양의 유무에 따라서도 구별하는데 크게 '무문보'와 '유문보'로 나뉘고, 유문보는 다시 문양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 수를 놓은 '수보', 문양을 두어 짠 천으로 만든 '직문보', 천에 금박 문양을 찍은 '금박보', 천에 당채 등으로 그림을 그려 넣은 '당채보' 등이 있다.

이중 '수보'는 주로 혼례 등의 길사吉事에만 쓰였다. 수보의 문양으로는 수화문樹花紋이 가장 많았는데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신성시되는 자연물 가운데 하나였다. 꽃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부활의 상징이었으며, 열매는 다복多福, 다산多産, 다남多男을 상징한다. 이렇듯 복락기원福樂祈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수보는 다른 보자기와 달

리 조각보와 함께 유품으로 많이 전해 내려와 옛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강릉수보를 으뜸으로 친다.

별 것 아닌 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보자기

21세기에도 보자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예단을 보낼 때, 명절 선물을 포장할 때는 물론 격조 있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변신하기도 한다. 특히 예나 지금이나 집안의 중요한 행사인 혼례를 준비하며 예단을 보내거나 함을 보낼 때 보자기로 정성스레 포장하면 의미와 가치 있는 선물이 된다. 또 명절 선물이나 손수 만든 음식을 선물할 때 오직 포장을 위해 쓰고 버리는 일회용 포장지가 아닌 보자기를 활용하면 보내는 사람의 정성과 센스를 담은 마음을 표현하는 데 효과적이다. 보자기를 커튼으로 활용하면 빛을 가리는 동시에 맛있는 창가에 색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 식탁에 펼치면 식탁보로, 쿠션을 감싸면 쿠션 커버로, 보자기의 변신은 집안 인테리어에도 유용하다.

보자기가 현대 실생활에서 여전히 실용적 미감을 뽐내기도 하지만, 보자기의 예술적 가치를 들여다보는 자리도 마련됐다. 2012년에 시작돼 2년에 한 번 개최되는 '국제보자기포럼'이 그것이다. 보자기의 역사, 소재, 배경, 활용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 10여 개국의 작가들이 참가한다. 보자기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회와 옛 보자기 소장품 특별 전시, 국제 강연 등과 보자기 만들기, 전통 감물 염색 체험 등 한국 전통 공예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행사다. 세계적으로 리사이클링 문화가 화두가 되면서, 쓰임새 많은 보자기를 만든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귀감이 될 만한 디자인 작업이다. 또한 예술과 생활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유연성을 강조하는 현대 예술과도 닿아 있다. 이렇듯 우리의 값진 보자기 문화를 감싸 안아 매듭으로 잘 여며 그 가치를 보존하고 운반하는 것은 우리의 몫일 것이다. S



자유로운 선의 움직임이 공간에 스며들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얼마 전까지 전시된 지니 서(Jinnie Seo)의 설치 작품 <유선사遊仙詞>는 작가의 관심이 동양화에까지 뻗어 있음을 알려준다. 그림 속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소요하고 싶다는 욕망이 3차원 상에서 구현된 것이다.

에디터 윤연숙 글 이선영(미술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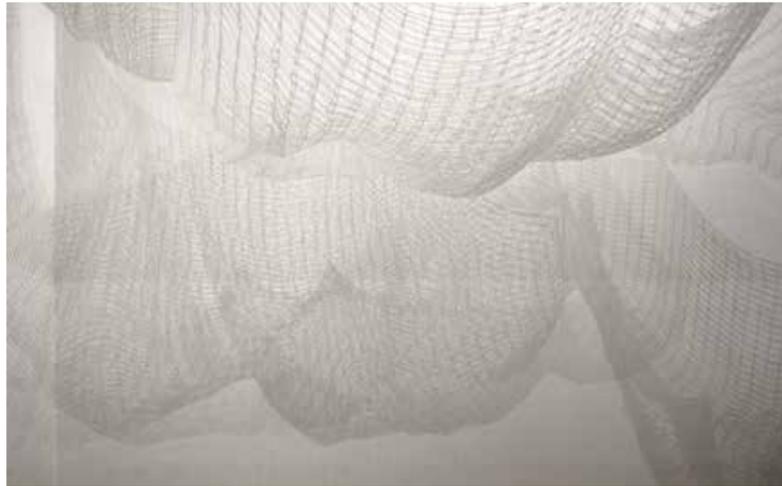
1 <End of the Rainbow>, Jinnie Seo, Dimension Variable, Steel Net and Steel Bands, 2009

2 <Red Chamber>, Jinnie Seo, Wall Drawing(House Paint, Charcoal, Chalk on Wall)&Paper-cut Installation(Acrylic on Paper), 2004

그림, 특히 동양화의 이상향적 공간은 관객으로 하여금 그림 속의 작은 인물이 되어 상상으로 그 안을 거닐 수 있게 한다. 실경뿐 아니라 관념에 바탕하는 동양화는 그 크기가 아무리 작아도 유한 속의 무한을 느끼기에 충분한 만큼의 시공간적 수용성이 있다. 이 잠재적 시공간을 3차원 상에서 현실화하기 위해 설치미술가는 화가와는 또 다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니 서에게 그것은 작품의 구성 요소를 확정하고 조합, 구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보통 동양화에서는 움직이는 시점을 이동 중인 등장인물들의 반복적 묘사를 통해 암시하곤 한다. 이 편에 있던 사람이 저편에 또 한 번 배치되는 공간상의 차이는 시간상의 차이 또한 알려주는 것이다. 그림 속의 산책자는 새벽녘에 그림의 전경에 나타났다가 저녁 무렵 그림의 후경쯤에서 화면 밖으로 나갈 것이다. 지니 서는 이러한 그림 속 상상의 이동을 실제 공간 속에서 구현한다. 그것은 단지 벽에 걸려 있을 뿐인 회화에서 자신이 느꼈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지니 서의 작품은 기본적으로 드로잉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재현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선의 움직임에는 시간성이 개입되어 있다. 끝없이 펼쳐지는 병풍을 닮은 작가의 작은 스케치북들처럼,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를 향하는지 모르는 정처 없는 선들은 기묘묘한 형상과 공간을 탄생시킨다. 가장 보편적인 미술의 형식인 그림이나 조각이 움직이지 않는 공간적 양식임을 염두에 둘 때, 선의 움직임에는 닫혀 있는 공간을 열어놓는 효과를 준다. 게다가 드로잉에 바탕한 회화는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 그 사이의 공간 또한 풍부한 잠재성이 있다. 작가는 캔버스라는 평면이 아니라, 공간 전체를 캔버스 삼아 그리게 된다. 화가에서 설치미술가로의 변신이다. 그림 내부에 있던 잠재적 시공간을 현실화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지니 서의 설치미술은 관객으로 하여금 그 안을 걸으면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지각적 체험을 일깨운다.

최근 작품 <유선사>는 한지 장판을 돌돌 말아 산처럼 세우고, 플라스



<Wandering Still>, Jinnie Seo, Hand-woven Translucent Plastic Straw Structure&Hand-made Korean Rice Paper, 2015

텍 빨대를 투명 실리콘 줄로 하나하나 엮어서 구름처럼 띄워놓았다. 자연, 또는 자연에 바탕을 둔 예술 -작품 <유선사>는 강희안의 산수화와 허난설헌의 시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다- 은 일종의 무대 연출로 변형된다. 실제로 지니 서는 자신의 활동 무대를 미술계에 한정하지 않고, 무대 디자인이나 오페라 의상 제작 등에도 참여한 바 있다. 이번 작품의 경우에는 동양화적인 증후성이 살아 있다는 점이 이전의 설치 작품과 다르다. 빨대로 만들어진 사각형이 확장되어 있는 구름 부분은 12m 높이의 천장으로부터 관객의 머리 위 공간까지 복잡한 실루엣을 늘어뜨린 채 드리워져 있으며, 둥글게 말아 자석으로 고정시킨 한지 장판 역시 그 단면이 제각각이다. 작품 <유선사>에서, 종이와 빨대 같은 평범한 일상의 재료가 산수의 요소가 되기 위해 기하학은 유기적 속성을 포함해야 했다. 그렇게 하여 약간의 부피를 가진 직선으로 이루어진 물건은 경계나 모서리가 없는 구름이 되었고, 전통 바닥 장식재는 자신의 고유한 향을 공간에 흘리면서 별뿔 일어나 있는 것이다. 한지 장판과 빨대로 그려진 또 다른 산수화는 선택된 구성 요소의 조합을 통해 확장성을 가진다.

끝 없는 이동이 담긴 기하학적 추상화

십여 년 전에 발표한 작품들(2003년 갤러리 시간, 2004년 브레인팩토리)은 기하학적이거나 유기적인 선들로 이루어진 회화의 층들을 하나하나 떼어내 공간에 걸어놓은 것 같은 효과를 주었다. 지니 서의 기하학에는 유기성이, 유기성에는 기하학이 내재되어 있다. 그것은 생명과 예술의 공통적 속성이다. 레드 계열이나 블루 계열로 칠해진 종이를 잘라내어 공간에 설치한 것들은 앙리 마티스의 말년 작업인 종이를 잘라 만든 드로잉을 떠오르게 하는 단순하고도 강렬한 작품들이다. 그것이 평면을 넘어 환경의 차원으로 고양된다. 푸른 계열로 이루어진 작품은 서늘한 기하학적 이성, 붉은 계열로 이루어진 작품은 약동하는 생명의 기운이 느껴진다. 2차원과 3차원 간의 변환은 그리기와 자르기 간의 역동적인 호환성에서 비롯된다. 브레인팩토리에서의 작품 <Red Chamber>(2004)의 경우, 그림의 요소들이 3차원으

로 다 펼쳐나온 상황이었기에 벽은 특별한 슬모를 찾지 못해 벽화로 채워졌다. 미술관 내벽은 혈관 속 붉은 세포 같은 것들이 출렁이는 듯하다.

그림도 마찬가지로, 추상 언어의 힘이 극대화된 작품에서 관객은 서늘하거나 따스한 공간으로 밀어 넣어진다. 최근의 작품에서는 유기적 또는 기하학적 추상화가 산수화로 바뀌었을 뿐이다. 드로잉의 공간적 변주는 눈만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정지된 시점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다가오는 다양한 시점들을 낳았다. 1994년 한국에 정착한 이후에도 자유롭게 세계 곳곳에서 작업을 해온 작가에게 머무름보다는 이동, 그것도 끝없는 이동은 작품에도 깊이 스며든다. 이동은 작가의 이력에서도 발견된다. 지니 서는 조형예술을 전공하기 전에 생물학을 전공했다. 생물학적 배경은 작품에서 시간성을 증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태어나 자라고 복제하며 죽는 생명이 무엇보다도 시간을 통해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설치미술이라는 것이 고정된 시점이 아닌, 시간을 통한 경과를 증시하는 점과 닮아 있다. 그것은 기존의 것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로이 발생하는 것들에 주목한다.

지니 서는 어릴 적 엄마와 만나고 이별하기를 반복했던 공황 같은 과도적인 공간을 좋아한다. 길을 잃을 정도로 정처 없이 걷는 것도 좋아한다. 2009년 몽인 아트센터에서의 전시 <End of Rainbow>는 보이는 하지만 닿을 수 없는 끝없는 과정에 대한 비유로, 무지개라는 은유를 사용했다. 그것은 직선 또는 곡선의 금속으로 공간을 구획하고 미로처럼 관객을 헤매게 만든 작품이다. 거기에는 목적지에 단번에 도달하는 지름길이 아니라, 과정 그 자체를 향유하려는 태도가 있다. 작품 속에 보이지 않는 길을 내어 그 위를 거닐게 만드는 그녀의 작업은 시간 속에서 움직이는 신체를 억압하는 현대문명에 대한 대안으로 다가온다. 아파트를 비롯한 닫힌 공간 속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여가를 보내고 있는 현대인, 더구나 정보 시대가 펼쳐지면서 눈과 손가락만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현대인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육체적 감각의 회복이다. 지니 서의 설치 작품은 이러한 육체적 지각을 활성화한다. S



질박한 멋이 배어든 문필가의 목침

동양학자 조용현

동양학자, 사주명리학 연구가,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수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자연과 교감하는 조용현 선생, 20여 년 넘게 우리나라의 산하를 누비면서 천문(天文), 지리(地理), 인사(人事)를 공부하고, 그에 관한 저술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온 선생에게 목침(木枕)은 이야기꾼의 운명을 살아내게 하는 특효약이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이은숙

삼나무와 편백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어 '치유의 숲'이라 일컬어지는 전라남도 장성군 축령산(鷲靈山) 자락에 조용현 선생의 글방이 있다. '쉬고 또 쉬어라'라는 의미를 담아 이름 지은 글방 '휴휴산방(休休山房)'에서 그는 책과 차를 즐기며 휴식을 취하고 글을 쓴다.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세상의 이치와 삶의 지혜를 저술과 강의로 전하고 있는 조용현 선생은 항상 책을 가까이하는 동시에 전국의 이곳저곳으로 답사를 다닌다.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 날것 그대로를 드러낸 생생한 이야기를 글로 풀어낸다.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입니다. 책 속에서 자료를 얻고, 답사를 하며 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숨은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대화를 통해 더욱 내밀한 깨달음을 얻고, 홀로 산책을 하며 사색의 시간을 거쳐 비로소 한 편의 글을 완성하게 되지요."

조용현 선생의 이런 글쓰기 과정은 흡사 의식처럼 진행된다. <조선일보>에 '조용현 살롱'이란 이름으로 매주 1회 칼럼을 연재하며 지난 7월 말 1000회를 맞이했으면서도, 그간 한 번도 소재 고갈로 고민한 적이 없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자신의 글쓰기를 정신노동이라 칭했다.

"노동으로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저만의 해독제는 차와 목침(木枕)입니다. 그중에서도 목침은 목덜미를 지압해주는 효과가 있어 목침을 베고 누우면 장시간의 글쓰기로 뻣뻣해진 목과 어깨를 가볍게 풀어줍니다.

다. 평소 알고 지내는 목수에게 부탁해 만든 목침을 사용한 지 올해로 벌써 15년째네요."

조용현 선생은 차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 워낙 차를 좋아해서 차마시는 데 필요한 다구(茶具)와 다실(茶室)에도 관심이 많다.

"다실 하면 보통 실내 공간을 떠올리지만 저는 전남 담양 소재원의 정자亭(亭) 광풍각을 한국적인 품격이 오롯이 담긴 다실의 원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곡의 물소리가 음악이 되고, 대나무 숲과 소나무들이 사방을 두른 그림이 되며, 선선한 바람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광풍각은 지인과 향기로운 차 한잔 하며 대화를 나누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입니다."

그는 또한 다구를 찬찬히 들여다보길 권했다. 다구의 생김새에서 옛날부터 동양에서 중요시했던 여러 가지 상징과 미에 대한 가치관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래서 차를 마시는 것은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쉼이 누적된 전통의 디자인과 미적 감각을 훈련받는 것이라 말한다.

스스로를 이야기꾼이라 칭하는 조용현 선생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타고난 이야기꾼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그가 예로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는 동양의 정신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다. 일명 '강호 동양학 사전'. 아라비안나이트처럼 다양한 일화가 담길 예정이었는데, 실화와 소설의 경계를 아찔하게 넘나들며 즐거운 이야기를 들려줄 그에게 앞으로도 한결같이 목침이 제 역할을 다 해내기를 바라본다. S

문방사우의 志와 德이 쌓여가는 책상

책 읽기 좋은 계절이라 책상 곁에 머무는 시간이 갈수록 길어진다. 따뜻한 차 한잔 옆에 놓인, 한국의미를 간직한 다소곳한 문구들은 정감을 나누는 친구 같은 존재로 깊이 있는 멋을 더해 준다.

에디터 권자에 사진 이종근



보상당초봉황문인 전통 문양만으로 시선을 끄는 강렬함이 돋보인다. 모던한 블랙 바탕 위에 은빛의 전통 문양이 프린트되어 있는 노트는 책상 위 주인공으로 손색없다. 리움SHOP.



문방사우의 초성이 아로새겨져 있는 한지 커버 연필통은 걸면의 수더분한 색과 달리 안쪽은 푸른 나뭇잎 색이다. 투박한 듯 정감이 느껴지는 연필은 모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도톰한 재질감이 돋보이는 한지 메모지는 동그란 모양 덕에 한 장짜리 예쁜 카드로도 사용 가능하다. 꽃이에 날장들을 꽃아놓으면 종이로 만든 미술품처럼 보인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찌를 듯한 태양의 맹렬함을 뒤로하고 문득, 얼굴 위로 느껴지는 시원한 바람에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자연의 이치에 따른 입추의 기운은 바다로 산으로 떠나 있던 마음을 책상으로 불러들여 '무언가'를 하고 싶게 합니다. 문방사우文房四友, 서재의 중심을 이루는 종이, 붓, 베틀, 먹을 일컫는데 선비의 학문과 삶을 함께 공감하는 벼로 여겨졌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곁에 역시 문방사우 같은 벼이 있으니, 바로 문구입니다. 비록 클릭과 엔터 키로 많은 것이 실행되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날로그 감성 가득한 문구들은 때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흐뭇함을 느끼게 되죠. 수더분하게 짝인 흑심 연필, 한지로 만든 메모지, 전통미를 간직한 모던한 연필과 만년필 등은 실용성을 넘어 장식으로도 손색이 없는 책상 위 벼로 가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S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여닫이 부위에 기능적인 효율성을 살린 경첩과 전통 느낌이 물씬 풍기는 문고리가 달려 있는 노트는 장식용으로도 훌륭한 소품이다. 지승희 작가 작품으로 www.bookstory.org.



소가족 소재로 견고함이 돋보이는 명함 지갑. 손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로 유연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지갑 세트는 리움SHOP.



책상 위에 놓고만 있어도 멋진 작품처럼 느껴진다. 한국적인 감성이 물씬 풍기는 백자로 된 가위 케이스는 정유정 작가 작품으로 가나아트갤러리.



오방색이 주는 은은하면서도 유연한 색감이 눈길을 끈다. 침선 예술의 절정인 조각보 형태가 녹아 있는 책꽂이는 종이나무갤러리.



구멍 둘을 내어 공기를 조절 연적 안에 물을 넣고 또 원하는 만큼의 물이 나오도록 한 도자 필각 연적은 이세용도예.



재생종이로 제작해 활용성을 높인 노트와 촉감 좋은 대나무 재연필 포함하여 세트 구성으로 판매는 자구나무 by 해브브서울.



옛 선비들의 친한 벗 중의 하나였던 베틀은 백색과 만나 모던한 장식품으로 재탄생했다. 책상 위는 물론이요 집안 장식장에서 빛을 발하는 도자 소재의 베틀은 우일요.



휴대하기 좋은 미니 사이즈로 손잡이 끝에 달려 작은 원석이 여성스러움을 배가시킨다. 작품성까지 겸비한 돋보기는 윤혜림 작가 작품으로 KCDF갤러리.



자게 문방구는 거북이와 물고기 빗장 형태의 문진과 자게 연필 펜 플레이트로 구성된 나전 사무용품으로 리움SHOP.

가을의 향과 멋이 머무르는 어깨

멋을 아는 이들의 손길이 더욱 바빠지는 계절이다. 스카프 하나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하고 의상과 매치한 목걸이와 브로치로 다른 이들의 부러움을 사는, 멋쟁이들의 센스.

에디터 권자에 사진 이종근



마치 물속에서 물감이 그대로 흘러 퍼지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잡은 듯한 스카프. 자연스러운 프린트로 캐주얼은 물론 포멀한 슈트에도 잘 어울린다. 황혜미 작가 작품으로 KCDF갤러리.



작은 브로치 안에는 작가의 정형화되지 않은 손놀림이 고스란히 표출되었다. 끈을 이용해 엮어 있는 듯 비대칭되는 원을 만들어내며 유니크함을 전한다. 장정숙 작가 작품으로 엘스토어.



크기와 모양이 서로 조금씩 다른 시각형이 만나 감각적인 브로치로 탄생했다. 가을 감성에 어울리는 브라운, 네이비 등 컬러의 패브릭 매치 또한 멋지다. 종이나무갤러리.

립든 곱든, 여름 한철 무사히 잘 보냈던 짧은 옷들을 정리하며, 수납장에 넣어두었던 '가을스러운' 아이템들을 하나둘씩 꺼내야 할 때입니다. 한낮에는 아직 여름의 열기가 살짝 남아 있는 듯하지만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쌀쌀한 바람에 자연스레 옷깃을 올리고 몸을 살짝 웅크리게 되는데요, 이럴 때 스카프는 아주 요긴한 아이템으로 쓰입니다. 노출된 목과 어깨를 감싸주어 체온을 유지할 뿐 아니라 노멀한 차림에 포인트를 주는 근사한 패션 아이템이기 때문이죠. 또한 볼륨감이 있는 볼드한 목걸이 또한 목을 돋보이게 해줄 액세서리로 스카프의 컬러와 프린트에 맞춰 코디한다면 우아함은 배가될 것입니다. 여기에 작가의 손으로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성 갖는 브로치는 고른 이의 감각까지 업그레이드시켜줄 것입니다. S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푸른 보석에서 피어오르는 나무와 그 나뭇가지 사이의 새들, 자연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담았다. 최재욱 작가 작품으로 갤러리 보고재.



기하학적 패턴이 프린트된 스카프는 면과 실크 소재로 부드럽게 목과 어깨를 감싸준다. 작가의 창의적인 감성이 그대로 밴 스카프는 이수인 작가 작품 KCDF갤러리.



작은 나비 오브제가 마치 산속 바위에서 노니는 듯하다. 차가운 금속 소재 브로치지만 나비로 인해 따뜻한 감성이 일렁이는 브로치는 권진영 작가 작품으로 공평아트갤러리.



슬리드한 스카프는 색감만으로 시선을 고정시킨다. 자연스러운 색감으로 비슷한 컬러의 의상과 매치하면 이보다 더 멋질 순 없을 듯. 온세미로 by 해브빈서울



스카프도 아닌, 목걸이도 아닌, 네크라인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컬러에 붙였다 뗄 수 있는 컬러 장식 액세서리가 정답. SATCHI by 엘스토어.



실로 꼬아 만든 줄과 패브릭 그리고 골드 체인이 만들어낸 유니크한 조화. 블랙과 올리브 그린의 매치 또한 멋스럽다. SATCHI by 엘스토어.



조형기가 돋보이는 목걸이. 펜던트의 볼륨이 큰 만큼 네크라인이 깊게 팬 의상과 잘 어울린다. 금속 체인과 패브릭 펜던트 목걸이는 강정임 작가 작품으로 가나아트갤러리.



무심한 듯, 수더분하게 선과 면을 만든 작가의 세련된 감성이 돋보인다. 가을 햇살에 눈부시게 반짝이는 자수정 원석의 아름다움까지. 배창숙 작가 작품으로 공평아트갤러리.



가을 햇살에 투명하게 빛나는 타원형 오브제들과 소프티한 컬러감의 끈으로 엮어 만든 브로치는 강정임 작가 작품으로 가나아트갤러리.

뮤즈, 예술가들의 영감의 근원

위대한 예술가에게는 끊임없는 영감을 제공해준 뮤즈들이 존재한다. 뮤즈는 그들에게 창작열을 불태우는 동시에 고단한 삶의 휴식과 위안이 되기도 하며, 때론 쾌락과 고통이 되기도 한다. 예술가들의 삶과 사랑, 고뇌와 밀접하게 닿아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려면 뮤즈의 존재를 더듬어볼 필요가 있다.

에디터 윤연숙



<The Kiss>, Gustav Klimt, 180x180cm, oil on canvas, 1908, The Österreichische Galerie Belvedere, Vienna, Austria



<Self-Portrait as Tehuana(Diego in My Thoughts)>, Frida Kahlo, 76x61cm, oil on masonite, 1943, Collection of Jacques and Natasha Gelman Mexico City, Mexico



<Portrait of Jeanne Hebuterne in a Large Hat>, Amedeo Modigliani, 54x37.5cm, oil on canvas, 1918, Private Collection

뮤즈(muse)는 사전적으로 춤과 노래·음악·연극·문학에 능하고, 시인과 예술가들에게 영감과 재능을 불어넣는 예술의 여신들을 말한다. 고대 그리스의 예술가들은 예술 작품에 신의 영원한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고 믿었으며, 예술적인 영감을 얻기 위해서 음악, 미술, 문학 등을 주관하는 여신인 뮤즈에게 호소하곤 하였다. 오래전부터 예술가들에게는 뮤즈의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술가들에게도 예술혼을 자극하고 창작의 열쇠를 쥐어준 뮤즈가 있었다. 뮤즈의 모습은 사랑하는 여인, 동료 예술가 등 인물에서부터 자연 풍경, 예술작품, 발레, 악기, 규정할 수 없는 추상 등 다양한 형태로 발견되었다. 특히 예술가들의 반려자는 창조적인 발상과 상상력의 원천이 되어 그들의 작품 세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었다.

황금빛 화가로 우리에게 친숙한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의 뮤즈는 에밀리 플로게(Emilie Floege). 한국인이 사랑하는 작품 <키스>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클림트는 여성 편력이 심한 예술가로 전해진다. 에밀리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육체적 관계 속에서 영감을 얻었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며 퇴폐적인 바람둥이 예술가로 불렸다. 그러던 그가 에밀리에게는 400통이 넘는 러브레터를 보냈고, 이전 여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랑을 하게 됐다. 하지만 사랑은 오래가지 못

했다. 바람을 피운 클림트를 목격한 에밀리가 그의 곁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녀가 떠난 후 클림트는 2년 동안 한 그림에만 몰두했는데, 바로 그것이 대표작 <키스>다. 클림트는 그림에 열정적인 사랑을 담아 진심을 고백했고 에밀리는 그의 마음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정신적 지주이자 친구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함께 보냈다.

멕시코를 대표하는 초현실주의 화가 프리다 칼로(Frida Kahlo)의 예술혼은 남편 디에고 리베라(Diego Rivera)에 대한 사랑과 배신, 절망과 상처에서 비롯되었다. 프리다는 “나의 평생 소원은 단 세 가지, 디에고와 함께 사는 것, 그림을 계속 그리는 것, 혁명가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18세 때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친 프리다는 아주 오랫동안 병상에서 생활하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뎌야 했다. 그 절망을 치유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정규 미술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던 그녀는 그림을 정확히 평가해줄 사람이 필요했고, 당시 멕시코와 혁명을 대표하는 미술가라고 불리던 리베라를 만나게 되었다. 리베라는 프리다에게 화가의 길에 대한 확신을 주었다. 그리고 둘은 21세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혼했다. 리베라는 프리다의 삶 전체를 지배했다. 화가의 삶과 혁명가의 인생을 가져다 준 동시에 멈추지 않은 의도로 고통과 큰 상실감을 주었다. 리베라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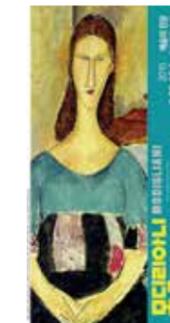
채워지지 않은 갈증은 그림으로 승화되기 시작했고, 프리다는 그녀만의 독특한 화풍을 완성할 수 있었다.

기형적으로 긴 목과 긴 얼굴, 눈동자 없이 텅 빈 아몬드 모양의 눈과 살짝 기울어진 얼굴을 가진 초상화의 주인공은 잔 에뷔테른(Jeanne Hebuterne)이다. 아메데오 모딜리아니(Amedeo Modigliani)가 그린 인물화의 전형적인 모습은 잔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모딜리아니의 후기 인물화에서 동공 없는 하늘빛 눈이 자주 등장하는 데, 실제 잔의 눈동자가 푸른 빛을 띠고 있다고 한다. 둘은 파리 몽파르나스의 한 카페에서 처음 만나 열렬한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14세 많은 가난한 화가였던 모딜리아니를 그녀의 부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부모의 반대에 집을 나온 잔은 모딜리아니와 동거를 시작했고 이듬해 첫딸을 낳았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된 잔은 돈이 없어 난방조차 할 수 없자 친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이때 잔의 부모가 두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했고 둘은 생이별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건강이 악화되던 모딜리아니는 병원에 입원한 지 2일 만에 세상을 떠난다.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실의에 빠진 잔은 모딜리아니가 죽은 다음 날 자신의 집에서 뛰어내려 스물둘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한다. 둘의 비극적인 사랑은 전설처럼 회자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S

모딜리아니, 몽파르나스의 전설

전 세계 45곳의 유수의 공공 미술관과 개인 소장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모딜리아니 회고전이 국내 최초, 아시아 최대 규모로 열렸다. 현존하는 모딜리아니의 유화 작품은 400여 점이 채 안 될 만큼 그가 남긴 작품 수는 매우 적다. 파리시립미술관, 피카소미술관, 미국 롬레도미술관, 이스라엘미술관, 멜버른 빅토리아국립미술관 등 세계 20여 곳의 유명 미술관과 개인 소장자 20여 명에게서 모은 작품 70여 점을 통해 모딜리아니 예술의 정수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이번 회고전은 모딜리아니의 예술 세계를 아우르는 1906~20년 사이의 유화와 드로잉 작품으로 구성됐다. 그의 간결하고 응축된 표현 양식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남자의 초상', '여인상 기둥', '여인의 초상', '누드', '종이작품', '모딜리아니와 모리스 키슬링' 등 총 6개의 테마로 선보인다. 전시는 작가가 프랑스 몽마르트르에 거주하던 시기의 초기 작품과 더불어, 몽파르나스 시기에 조각가 브랑쿠시의 영향으로 조각에 몰두했던 1910~13년을 조명한다. 그리고 다시 회화로 돌아오면서 변형된 그의 표현 방식이 어떻게 그를 파리의 이방인 예술가에서 몽파르나스의 전설로 끌어올렸는지 따라가면서 모딜리아니의 예술 세계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

일시 2015년 10월 4일까지 오전 10시~오후 8시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3층
관람 요금 성인 1만5000원, 청소년 1만원, 어린이 8000원
문의 1588-2618



뷰티 리추얼, 아름다움의 비밀 Beauty Ritual - The Secret of Beauty

설화수의 철학이 담긴 특별한 손길에서 홀리스틱 뷰티가 완성된다. 오감을 아우르는 지혜가 가득 담긴 설화수의 뷰티 리추얼은 내·외면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아준다. 세심한 마음과 끝없는 노력으로 설화수만의 뷰티 노하우를 쌓아왔기에 가능한 일이다.

에디터 윤연숙

설화수는 지금껏 창의적인 뷰티 리추얼을 계속 만들어왔다. 피부 근본을 다스리는 부스팅 에센스 윤조 에센스로 시작해 마무리 에센스 미안 피니셔로 끝나는 새로운 뷰티 습관, 그리고 피부 효능을 극대화하는 손 미용법과 설화수만의 뷰티 노하우가 집약된 설화수 스파까지. 이는 모든 것을 따로 떼어서 보지 않고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전체를 이루는 동양적인 관점에서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설화수의 믿음에 기반한다. 또한 한국 여인이 지닌 아름다움의 비밀을 50년에 가까운 노력으로 축적하여 완성한 설화수만의 뷰티 리추얼이다. 설화수 뷰티 리추얼은 여성의 피부 생애 주기에 따른 피부 불균형에 주목, 전설적인 한방 성분으로 최적의 피부 균형을 선사하고, 오감을 자극하는 텍스처와 향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 내·외면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아주는 총체적인 피부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설화수 스파는 설화수 뷰티 리추얼의 정수로, 단순한 에스테틱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근본부터 치유해 홀리스틱 뷰티를 실현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설화수의 철학과 브랜드만의 세계를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설화수는 앞으로도 피부 효능을 극대화하는 창의적이고 지혜로운 뷰티 리추얼을 발굴해나가고자 한다. 설화수 뷰티 리추얼을 통해 전 세계 여성들은 홀리스틱 뷰티를 경험하고, 진정한 아름다움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S

Sulwhasoo has continued to create beauty rituals form the new beauty habit that starts with First Care Activaing Serum EX and ends with Luminature Essential Finisher, to the hand massage technique for maximum results, and the Sulwhasoo Spa that concentrates the original beauty knowhow of Sulwhasoo. All these are based on the faith of Sulwhasoo in the value of harmony and balance which sees the whole as an interrelated system, not as fragments. There is also Sulwhasoo's original beauty ritual, completed with nearly 50 years of arduous exploration of the secrets behind Korean women's beauty. Sulwhasoo Beauty Ritual focuses on the skin imbalance caused by women's skin cycle, and provides a holistic skin solution that creates the optimum balance with the legendary medicinal herbs and comforts the body and the mind with the texture and fragrance that awaken the five senses. In particular, Sulwhasoo Spa is not just an ordinary esthetician's salon, but the essence of Sulwhasoo's beauty ritual, with programs that heal the body and mind to realize holistic beauty. With Sulwhasoo Beauty Ritual, every woman in the world will be able to experience holistic beauty and come a step closer to true beauty.



아름다운 하루를 선사하는 소식들

아시아에 퍼진 진귀한 '적송'의 기운

설화수는 7월 29일과 30일 양일간, 말레이시아 '더 다타이 랑카위'에서 진설라인의 론칭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설화수의 50년 한방 성분 연구를 바탕으로 찾아낸 진귀한 '적송' 성분을 담은 브랜드 최고의 럭셔리 라인인 진설에 걸맞게, 자연과 어우러진 분위기 속에서 '적송'의 신비를 오감으로 체험하는 자리가 되었다. 높은 브랜드 위상과 설화수 진설라인에 대한 아시아 지역의 뜨거운 관심을 증명하듯이, 이번 행사에는 설화수 진출국 중 말레이시아 현지는 물론 싱가포르와 태국의 미디어, 셀러브리티들이 다수 참석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유명 여배우 데비 고(Debbie Goh)가 자신이 경험한 적송의 가치를 전해준 미니 토크쇼는 행사에 참석한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의 공감과 호평을 이끌어냈다. 설화수 진설라인은 예로부터 강인한 생명력의 상징으로 여겨진 '적송'에서 찾은 피부 생명 강화 안티에이징 성분인 DAA를 함유해 피부 노화를 다스리는 토털 안티에이징 라인이다.



입술 본연의 생기와 촉촉함을 채우다

설화수는 생기 넘치는 매끈한 입술로 가꿔주는 '에센셜 립세럼 스틱'을 9월 출시했다. 설화수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에센셜 립세럼 스틱은 바르는 즉시 부드럽게 밀착되어 깊은 보습과 탄력, 생기를 선사하는 테일리필수 케어 제품이다. 탁월한 보습 효과를 자랑하는 동백 오일 홍화 콤플렉스가 함유되어 입술의 갈증을 해소하고 2중 보습막이 유·수분을 동시에 채워주어 오랜 시간 촉촉한 입술로 보호해준다. 또한 행인 오일 성분과 쫄쫄한 엘라스틱 콤플렉스가 탄력 있고 매끈한 입술을 선사하는 동시에, 홍매화 추출물이 매화꽃 같은 자연스러운 생기를 부여한다. 설화수 에센셜 립세럼 스틱은 밤낮으로 케어해주는 1호 애플리콧 세럼과 입술 본연의 은은한 연홍 빛을 연출해주는 2호 블라썸 세럼, 두 가지로 선보인다. 3g, 4만원대



넓게 퍼져 있는 결점까지 한 번에 부드럽게 커버하다

9월에 출시한 설화수의 '에센셜 컨실러 스틱'은 부드럽게 도포되고 빠르게 밀착되어 얼굴에 넓게 퍼져 있는 결점까지 한 번에 커버해주는 신개념 컨실러다. 단순한 피부 커버 제품이 아닌, 피부에 유분막을 형성하고 고보습의 동백 오일 성분을 함유하여 촉촉한 보습 커버 효과를 구현하며, 행인 오일(살구씨 오일)을 함유하여 탄력 있고 매끄러운 피부를 선사한다. 뿐만 아니라 둥글고 매끄러운 파우더 입자를 사용해 얼굴 피부에 넓게 분포된 기미와 잡티를 손쉽게 가려준다. 또한 피부에 얇고 편안하게 밀착되는 사용감으로 여러 차례 덧발라도 답답하거나 들뜨지 않는다. 눈 밑 다크서클과 칙칙한 부위 커버에 효과적인 1호 미디엄 핑크와 볼부위 홍조나 붉은 잡티 커버에 효과적인 2호 미디엄 베이지, 두 가지 색상으로 선보여 피부 고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5g, 4만원대





〈Sulwhasoo〉 독자 선물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를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드립니다. 독자 업무를 이용해 응모 가능하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98p 독자 선물 지면을 참조하세요.

이제 결작을 만날 시간,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오랜 시간 사랑을 받고 있는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가 한국 초연 10주년을 맞아 더욱 완성도 높은 모습으로 충만한 무대를 선보인다. 꿈을 찾는 것조차 어려운 현대인들에게 '왜 꿈을 꾸어야 하는가'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묵직한 울림을 전한다.

〈맨 오브 라만차〉는 감옥으로 끌려온 작가 세르반테스가 자신이 쓴 희곡 〈돈키호테〉를 죄수들과 함께 공연하는 극중극 형식이다. 1965년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초연 무대를 가진 이래 반세기 동안 'Impossible Dream(이룰 수 없는 꿈)'을 비롯해 주옥 같은 넘버들과 '꿈'에 대한 힘찬 메시지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국내에서는 2005년 뮤지컬 〈돈키호테〉로 첫선을 보였다. 이번 공연에는 뮤지컬 스타 류정함과 조승우가 세르반테스와 돈키호테 1인2역을 번갈아 연기한다. 거리의 여인이자 돈키호테의 레이디 알돈자 역에는 뮤지컬과 연극을 넘나드는 배우 전미도와 최근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등으로 뮤지컬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린아가, 산초 역에는 정상훈과 김호영이 더블 캐스팅되었다. 작품은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와 현실을 넘어 꿈꾸는 태도의 대립을 보여주며 관객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다. 자신을 기사라고 상상하는 늙은 노인, 돈키호테를 통해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는 것이 미친 게 아니라, 꿈꾸기를 포기한 것이 진짜 미친 것'이란 메시지를 전한다.

일시 2015년 11월 1일까지 장소 디큐브아트센터 문의 1588-5212



러시아의 감성이 담긴 피아노 선율,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러시아 작곡가 라흐마니노프와 스크랴빈의 피아노곡으로 순회 공연에 나선다. 2015년은 스크랴빈(1872~1915) 서거 100주년이 되는 해로 기념적인 공연을 펼쳐 보일 예정이다.

피아니스트 백건우는 오랫동안 전국 리사이틀이나 해외 오케스트라의 국내 협연에서 여러 작곡가의 협주곡으로 청중과 만나왔기에 러시아의 독주 레퍼토리로 한국 팬과 호흡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백건우의 라흐마니노프 솔로가 한국 대중과 만난 건 1975년 광복 30주년 기념 음악제에서 라흐마니노프 소나타 2번을 연주한 것이 시작이다. 이후 1990년 독주회를 제외하곤 연주되지 않았다. 그만큼 이번 리사이틀은 백건우의 러시아인 솔로 레퍼토리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이번 리사이틀은 스크랴빈(Aleksandr Nikolaevich Skryabin, 1872~1915)의 24개 전주곡과 라흐마니노프(Sergei Rakhmaninov, 1873~1943)의 피아노 소나타 1번으로 구성됐다. 백건우가 보여줄 러시아 레퍼토리의 지평은 얼마나. 젊은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늘 그의 주변에 머물던 작품들의 새로운 해석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일시 9월 17~23일 장소 천안 예술의전당 대공연장(17일), 구리아트홀 코스모스 대극장(18일), 군포시문화예술회관 수리홀(1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2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23일) 문의 02-599-5743

뮤지컬 〈노르담 드 파리〉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동명 소설을 무대로 옮긴 뮤지컬 〈노르담 드 파리〉의 프렌치 오리진널 팀의 내한공연이 펼쳐진다. 2005년 세종문화회관 초연 당시 최단 기간 최고 입장객 수를 기록하는 등 돌풍을 일으킨 작품이다. 일시 10월 15일~11월 15일 장소 블루스퀘어 삼성전자를 문의 02-541-6236

공연 〈YB 20주년 콘서트-스무살〉



실력과 대중성을 겸비한 록밴드 YB가 데뷔 20주년을 기념해 〈YB 20주년 콘서트-스무살〉을 개최한다. 지난 20년간의 음악 여정을 되돌아보는 한편, YB의 노래로 인생의 회로애락을 함께했던 팬들과 관객들에게 추억과 희망을 전하는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일시 10월 15~18일 장소 LG아트센터 문의 02-749-9037

공연 〈택시 드리벌〉



1997년 초연을 시작으로 2004년까지 흥행 돌풍을 이어갔던 연극 〈택시 드리벌〉은 영화감독 장진의 연출작으로 11년 만에 김수로 프로젝트 12탄으로 부활했다. 맛 짙은 대사가 돋보이는 코믹극으로 김수로, 박건형 등이 출연한다. 일시 9월 1일~11월 22일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문의 1577-3363

책 〈당신과 하루키와 음악〉



소설가 백영옥, 재즈 평론가 황덕호, KBS 라디오 PD 정일서, 음악 칼럼니스트 류태형이 펼쳐 보이는 나와 하루키와 음악 이야기. 음악을 동지 삼아 인생을 걸어온 이들의 각기 다른 하루키와 음악 이야기가 소중한 재미를 선사한다. 감각적인 일러스트는 덤이다. 지은이 백영옥/황덕호/정일서/류태형 출판사 그책

전시 〈안토니 가우디전〉



건축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안토니 가우디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이번 전시는 탁월한 미적 감각과 독창적 양식으로 세계 건축과 예술, 디자인 분야의 새로운 장을 연 가우디의 건축 도면, 디자인 도면, 기록 사진 등 200여 점을 선보인다. 일시 ~11월 1일 장소 예술의전당 한기람 디자인미술관 문의 02-837-6611

전시 〈헨릭 뵘스코브-패션과예술, 경계를 허무는 아티스트〉



덴마크 출신의 아티스트 헨릭 뵘스코브는 패션, 사진, 설치, 영상, 퍼포먼스까지 넘나드는 크리에이티브이자 파리 패션 위크에서 새로운 컬렉션을 해마다 발표하는 패션 디자이너이다. 이번 전시는 데뷔부터 현재까지를 아우르는 그의 대표 컬렉션과 신작 등을 소개한다. 일시 ~12월 31일 장소 대림미술관 문의 02-720-0667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설화수 자여진에센스(5명)

깊어지는 주름줄기를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에센스입니다. 인삼 성분을 캡슐화한 진세니스피어™가 피부 본연의 탄성을 강화시켜 힘있게 차오르는 매끄럽고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줍니다. 문의 080-023-5454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관람권(4명)

한국 초연 10주년으로 호화 캐스팅과 더불어 완성도 높은 무대로 찾아오는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의 관람권을 4명(인 2매)께 드립니다. (티켓 수령은 추후 당첨자 개별 공지)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을 위한 고품격 매거진 <Sulwhasoo>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서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독자 엽서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내용은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독자 엽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방법 <Sulwhasoo> 내의 독자 엽서로 우편을 이용해 응모
- 응모 마감 2015년 10월 15일까지
- 중정 선물 설화수 자여진에센스,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관람권
- 당첨자 발표 11/12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란 참조

2015년 7/8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 명단

설화수 윤조에센스(5명)

- 김지연 서울 송파구 석촌동
- 원성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 이윤정 인천시 남구 학익동
- 지정란 충북 음성군 맹동면
- 한승희 대구 수성구 지범로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이용권 10만원권(5명)

- 노경수 인천시 부평구 부평5동
- 라정민 경기 화성시 능동
- 유재범 서울 관악구 행운1길
- 윤화섭 서울 송파구 잠실7동
- 정혜영 대전 중구 오류동

2015년 7/8월호 당첨자 선물은 9월 31일까지 보내드립니다.



주름줄기에 맞서는 강력한 힘이 깊어지는 주름을 탄력으로 차올리다

설화수 자여진에센스

피부 탄성이 무너지면 잔주름이 깊고 넓게 뻗어 나가는 주름줄기 현상이 시작됩니다. 깊어지는 주름줄기를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설화수 자여진에센스. 인삼 성분을 캡슐화한 진세니스피어™가 피부 본연의 탄성을 강화시켜 힘있게 차오르는 매끄럽고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줍니다. 더욱 강력해진 안티에이징 효과로, 주름을 이기는 피부의 힘을 경험하세요.

Special Gift 엽서를 보내주시는 애독자 중 추첨을 통해 정성껏 마련한 Gift를 드립니다

통합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 유효 기간
2010. 9.1~2017. 9.1
서울 마포우체국
승인 제210호

받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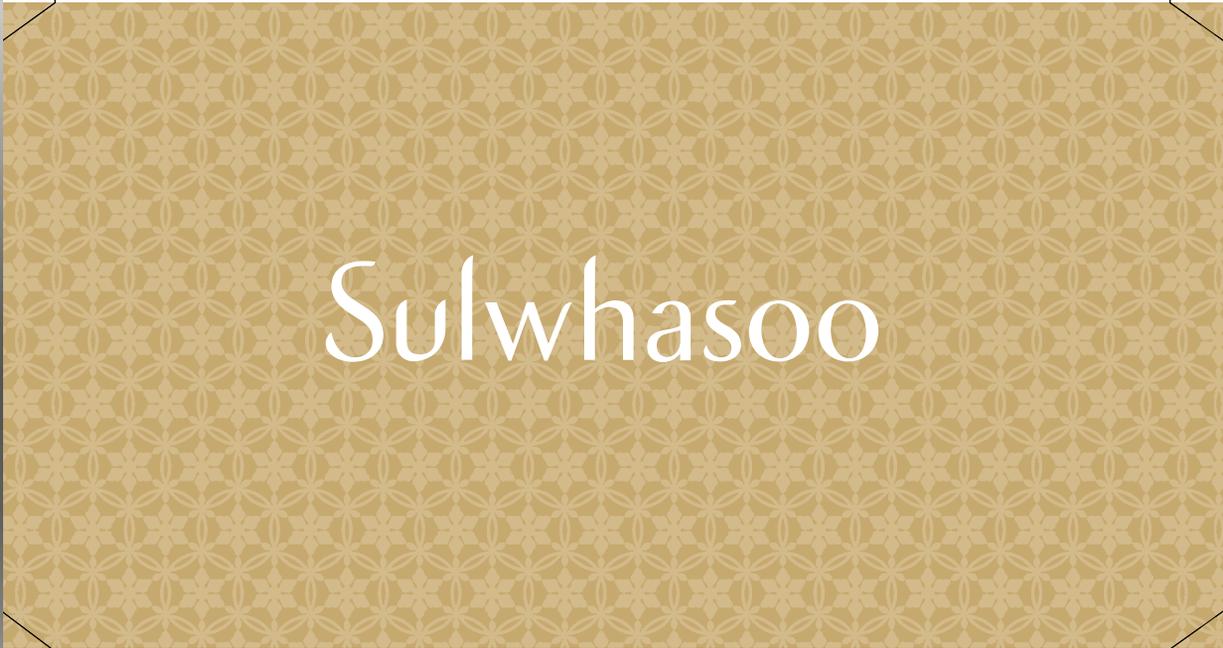
서울시 마포우체국 사서함 117호

〈Sulwhasoo〉 담당자 앞

전화: 080-023-5454(수신자 요금 부담)

0 4 1 5 6

Sulwhasoo



아모레퍼시픽 설화수의 <Sulwhasoo>는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고객님의 의견은 <Sulwhasoo>를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고객님께는 추첨을 통해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 펼치다

| |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 | | | | | |
|----------------|---------------------|---|---|---|---|---|---|
| | 7 | 6 | 5 | 4 | 3 | 2 | 1 |
| 폼격 있는 삶(8p) | 7 | 6 | 5 | 4 | 3 | 2 | 1 |
| 피부 섬기기(12p) | 7 | 6 | 5 | 4 | 3 | 2 | 1 |
| 동서고금이 만나다(16p) | 7 | 6 | 5 | 4 | 3 | 2 | 1 |
| 新 공간을 보다(22p) | 7 | 6 | 5 | 4 | 3 | 2 | 1 |
| 건너다(28p) | 7 | 6 | 5 | 4 | 3 | 2 | 1 |

2. 누리다

| |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 | | | | | |
|---------------|---------------------|---|---|---|---|---|---|
| | 7 | 6 | 5 | 4 | 3 | 2 | 1 |
| 설화인(36p) | 7 | 6 | 5 | 4 | 3 | 2 | 1 |
| 어우러지다(42p) | 7 | 6 | 5 | 4 | 3 | 2 | 1 |
| 설화풍경(48p) | 7 | 6 | 5 | 4 | 3 | 2 | 1 |
| 설화보감(52p) | 7 | 6 | 5 | 4 | 3 | 2 | 1 |
| 설화수를 말하다(58p) | 7 | 6 | 5 | 4 | 3 | 2 | 1 |
| 디자인 기행(64p) | 7 | 6 | 5 | 4 | 3 | 2 | 1 |

3. 익히다

| |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 | | | | | |
|--------------|---------------------|---|---|---|---|---|---|
| | 7 | 6 | 5 | 4 | 3 | 2 | 1 |
| 배움의 기쁨(72p) | 7 | 6 | 5 | 4 | 3 | 2 | 1 |
| 한국의 멋(78p) | 7 | 6 | 5 | 4 | 3 | 2 | 1 |
| 읽다(82p) | 7 | 6 | 5 | 4 | 3 | 2 | 1 |
| 설화에장(86p) | 7 | 6 | 5 | 4 | 3 | 2 | 1 |
| 집 안 단장(88p) | 7 | 6 | 5 | 4 | 3 | 2 | 1 |
| 몸 단장(90p) | 7 | 6 | 5 | 4 | 3 | 2 | 1 |
| 마음 단장(92p) | 7 | 6 | 5 | 4 | 3 | 2 | 1 |
| 설화 헤리티지(94p) | 7 | 6 | 5 | 4 | 3 | 2 | 1 |

+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받습니다.

1. 다음 호 <Sulwhasoo>에 더 적극적으로 실렸으면 하는 기사는? (해당 칸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 전통 미용법 전통 의상 및 액세서리 등 패션 꾸밈 전통 생활문화
 한국의 미를 간직한 풍경 전통문화와 관련된 인물
 기타 _____

2. 다음 중 받고 싶은 선물 1개를 선택해 주세요. (98p 참조)

- 설화수 자여진에센스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관람권
 이름 _____ 성별 남 여 나이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선물에 당첨되면 해당란에 적어주시는 주소 및 전화번호로 개별 연락 드립니다)

+ <Sulwhasoo>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부분과 불만스러웠던 부분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